

목회자 통성경 교육 연구

: 성경통독원 렉처러 코스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정순오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Sun O Je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ONG BIBLE EDUCATION FOR MINISTERS

: A CASE STUDY OF LECTURER COURSES AT BIBLE TONGDOKWON

Sun O Jeong

Gwayeok Church, Goheung

This project presents the 'Lecturer Course' of the Bible Tongdokwon as an alternative to the Bible re-education program for pastors. Lecturer Course is a course to systematically study Byoung-ho Zoh's 'Tong Bible Methodology' as a course to train pastors to read through the Bible. After graduating from seminary and starting the ministry, he spent more time in the ministry field rather than studying the Bible. Therefore, it is a sad reality that sermons continue to be narrowed down to parts in the midst of limited opportunities such as short time for Bible study and institutions for re-education.

The lecturer course of the Bible Tongdokwon considered that the 'Tong Bible' methodology education was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 pastors'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o the curriculum of the lecturer course was reviewed step-by-step. The Pastoral Lecturer course was taught every Monday from 10:00 am to 4:00 pm for 12 weeks at first, and has since been conducted over two weeks as an intensive course for 2 nights and 3 days.

This project is intended to help pastors, who always have to study and concentrate on preparing sermons, to study the entire Bible and give ample sermons without biasing the Bible to parts or falling into illustrative, verse-based, and separated book based. I would like to propose a lecturer course that is effective in providing a curriculum that is suitable for pastors as a Bible reeducation program.

국문초록

목회자 통성경 교육 연구

: 성경통독원 렉처리 코스를 중심으로

정순오

과역교회, 고흥

본 논문은 목회자들의 성경 재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성경통독원의 ‘렉처리 코스’를 제시한다. 렉처리 코스 목회자들의 성경통독 강사 양성 코스로 조병호의 ‘통(通, Tong)성경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코스이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 연구보다는 목회 현장에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의 시간이 짧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기회의 제한 속에서 설교는 계속해서 부분으로 좁혀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성경통독원의 렉처리 코스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에 있어 ‘통성경’ 방법론 교육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에 렉처리 코스의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목회자 렉처리 코스는 초창기에 12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습했고, 이후 인텐시브 코스로 2박 3일씩 두 주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설교 준비를 위해 늘 연구하고 집중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부분에 치우치거나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에 빠지지 않고, 통(通)의
방법론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해 넉넉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렉처러 코스를 목회자의 성경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목 차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감사의 글	x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6
II. 렉처러 코스 역사와 현황	7
1. 통성경과 통신학	7
1) 통성경이란?	7
2) 통신학이란?	11
3) 통성경 One Story	13
2. 목회자를 위한 통성경 교육의 목표	15
3. 목회자 통성경 교육 사례 (단기 프로그램)	19
1) 2005년 1회 한시미션 목회자 세미나	19
2) 2006년 통의 발전과 설교, 강의	20
3) 2007년 미래 목회자를 위한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2
4)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26
4. 렉처러 코스 과정	28
5. 렉처러 코스 교육 현황	30

6. 지역 렉처러 코스 사례 - 호남지역 렉처러 코스(과역교회)	38
7. 해외 렉처러 코스 사례 - 미주 렉처러 코스 (잭슨빌한인교회)	40
III. 렉처러 코스 교육의 실제	43
1. 목회자 성경 교육을 위한 통성경 방법론	43
2. 교육 단계에 따른 강의의 실제	43
1) 1단계 - 통성경 기초	43
2) 2단계 - Tongbible Semiotics	46
3) 3단계 - 통성경 길라잡이	48
4) 4단계 - 통성경학교 ; 십자가 그 순간	55
5) 5단계 - 통성경학교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57
6) 6단계 - 통성경학교 ; 하나님 마음	59
7) 7단계 - 성경 기도	61
8) 8단계 - 성경 전도	65
9) 9단계 - 성경 통독	68
10) 10단계 - 자격고사 및 과제	71
IV. 렉처러 코스 목회자 인터뷰와 평가	75
V. 결론	78
참고 문헌	80
부록	83

표 목차

<표-1> 조병호의 렉처러 코스 강의안	47
<표-2>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52개 제목	50
<표-3> 렉처러 코스 - 통성경 길라잡이 교육 범위	54
<표-4> 통성경학교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질문과 분위기	58
<표-5> 하나님의 마음 20마당 제목	61
<표-6> 통성경학교 - 성경 기도	64
<표-7> 렉처러 코스(10-12주 과정) 과제 예시	71
<표-8> 렉처러 코스(인텐시브 과정) 과제 예시	72

그림 목차

<그림-1> 호남지역 렉처러 코스 홍보지	39
<그림-2> 미주 렉처러 코스 홍보지	41
<그림-3> 통성경 7트랙	49
<그림-4> 통 프레임 -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53
<그림-5> 통성경학교 학습 단계	55
<그림-6> 통성경학교 - 하나님의 마음 표현	59
<그림-7> 성경을 통한 기도 5단계	63
<그림-8>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	66
<그림-9>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67
<그림-10> 역사순 성경통독 순서표	69

감사의 글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박사과정을 마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통(通)성경을 만나게 하시고 연구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논문을 진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 지도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꿈을 주시고, 목회자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되어 주시며, 삶의 멘토가 되셔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조병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마음을 담아 충고와 조언으로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김영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강의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고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과역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통(通)성경 렉처러 동역자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마다 아들의 바른 목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이귀례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내 박선영 사모, 든든한 삼형제 예원, 예민, 예준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미처 언급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에

정순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회자들에게 ‘설교’는 본질적인 직무이며 과제이다. 목회자는 일주일에 최소 10번 이상의 공식 예배 설교를 해야 하며, 그 외에도 심방 예배를 비롯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설교를 수없이 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회자는 다양한 목회 활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설교 준비에 많은 비중을 두기 힘든 실정이다. 성도들을 위한 축하, 격려, 위로 등 양육에 필요한 목회 현장의 다양한 비정기적인 일들이 우선 순위가 된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에 더 발전적인 재교육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한 설교보다는 짧은 시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편적 설교를 하게 된다. 게다가 성경 연구 시간도 부족한데,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또한 부족하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당위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에 먼저 익숙해져 있다. 어릴 때 배운 요절 암송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었고, 신학교에서는 상아탑적인 이론의 편중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에 앞서 성서 비평학을 배워야

하는 학문적 준비 기관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교과에 따른 신학의 전공 분야 세분화로 인해 통합적 성경 이해는 더 멀어졌다. 결국 성경은 신학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었다. 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신학 교육은 반드시 목회적 실제와 연결시키는 행위로 제한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으며, 과거 목회 활동을 위한 준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인 성찰적 해석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² 어쨌든 신학 교육이 목회자를 양성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의 대부분 시간과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바 그 동안의 신학 교육과 한국 교회의 성경 교육 패러다임은 여전히 현장의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목회자의 교회 성장 목표는 성경 연구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들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 한일장신대 김은주 교수가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³ 인터뷰 질문 중 ‘신학대학원 입학 시 계획했던 목표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목회 현장과 관련해서 보충하거나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대답과 일맥상통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은 ‘성경 이해’ 에 있어, 성경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은 많으나 성경 자체를 읽는 시간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혼자 읽어야 하는데,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에도 바빠서

¹ 노영상은 과거 미국장로교 신학교들이 교회를 조직하고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학을 했던 반면 오늘의 신학 교육은 학문적 준비를 시키는 기관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노영상, “신학과 신학교육의 현장성과 실천성 제고,” 「기독교사상」, (2014.5), 24-30.

² 김현숙, “신학교육과 대화적 패러다임,” 「기독교교육정보」, 19, (2001) 270.

³ 김은주,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II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2018.9.30), 89-130.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 자체’ 라는 용어를 사용 할 만큼 성경 이해 부족을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 수련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행하는 실체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이 부분을 행할 능력 부족에 대한 갈등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로 목회 현장에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성경 이해에 대한 것이 압도적이었다.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초입 단계로서 이미 목회 사역에서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목회자 준비 과정에서 성경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나 교회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목회자들은 신학적 지식의 탐구와 사변적 논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⁵ 즉 성경 중심의 교육보다는 신학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어느새 성경 전체를 읽어서 깨닫는 학습이 미흡하게 된 것이다.

목회자가 되어서는 신학교 교육 이후의 지속적 교육 과정이 부재한 상황과 목회 일정으로 인한 성경 읽기의 소홀함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며 쉽게 지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 목회자들은 이로 인해 성경 연구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시 초기 문제 제기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설교라는 짧은 시간의 효과를 기대하며 성경을 가르칠 때 요절주의, 예화주의라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짧은

⁴ Ibid., 105-110.

⁵ 한춘기, “한국교회의 성장방안 모색-교회교육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26, (2011.1.30), 143.

시간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설교 중 요절 중심의 메시지나 예화는 말씀 적용이 성도들에게 빠르게 이해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 패턴이 지속된다면 성도들에게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적용을 위한 자의적 해석을 가르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예화에 성경 본문을 맞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설교의 편의적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또 한 가지는 성경 해석의 편향성이다. 이는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성경 본래의 문맥적 해석보다는 정해진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 사회 문제를 보는 인식과 성향, 정치적 진영 등에 따라 성경 읽기의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⁶ 이는 성경의 부분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데에서 온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의 역사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다. 이는 일부 목회자들이 ‘강해’ 방식의 설교에 집중하면서 성경 읽기의 편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강해 형식의 접근은 성경 지식의 향상에 깊은 매력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맹목적 신앙이 아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으로의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시간적 배분, 예를 들어 사도행전 강해, 로마서 강해 등 부분에 집중된 나머지 다른 부분을 읽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는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는 강해 자체로 성경 읽기를 끝내는 아쉬움을 갖게 했다.

현대화된 기독교 현실에서 교회 성장과 성경 교육의 실전에 직면해 있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를 알고, 전하게 할 것인가? 목회자들에게 성경 재교육은 단순히 신학교 교육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성도들에게

⁶ 조병호, 『렛츠 통, 21세기는 통이다』 (서울: 통독원, 2006), 159.

‘성경 전체’를 가르칠 의무와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은 목회자들은 당연히 먼저 성경 전체를 읽고 알아야 한다.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읽음으로 밖에서 안으로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 따라서 어떻게 성경 전체를 기록대로 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재교육의 대안으로 성경통독원 원장 조병호 박사의 목회자 통성경 프로그램 ‘렉처러 코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성경’은 조병호가 창안한 것으로 강해와 통독을 100대 100으로 충분히 활용하여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한 성경 해석 방법론이다. 조병호는 렉처러 코스 이전에도 성경통독, 통성경에 대한 연구를 지속, 발전시키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이를 알리고 개교회에서 통성경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통성경이란 무엇이며, 왜 통성경이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2019년 렉처러 코스 이전의 행사들을 통해 통성경의 확대된 사회적, 기독교적 의미와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렉처러 코스의 커리큘럼을 통해 목회자 성경 재교육의 실효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성경통독원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렉처러 코스 커리큘럼에 따른 교재, 유인물들을 기본 자료로 하여 목회자 교육에 적합성과 목회 활동의 적용에 있어 유의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

연구의 범위는 목회자를 위한 성경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성경통독원의 ‘렉처러 코스’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성경통독원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등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성경통독원의 목회자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은 조병호가 통성경 연구를 발전시켜온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성경통독과 통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시기에 따라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조병호의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내용면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통성경은 ‘패밀리 스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렉처러 코스’ 교육 대상을 목회자로 더 집중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통해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기초’에 충실하기 위함이며 패밀리 스쿨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목회자 교육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렉처러 코스는 조병호의 독창적 프로그램으로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선행연구 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렉처러 코스에 대한 자료는 성경통독원에서 모두 제공받아서 정리하였다.

렉처러 코스가 통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만큼 본 논문의 주제 또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II. 렉처러 코스 역사와 현황

1. 통성경과 통신학

1) 통성경이란?

조병호가 성경통독 교육에 사용하는 ‘통’이라는 단어는 한 음절이지만 주로 한자어 ‘通-통할 통’, 즉 서구 교육과 동양 교육 방식의 상호 조화에 의미를 두고 성경 교육 방법론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⁷ 조병호는 1988년부터 성경통독운동을 진행해오다가 2006년 ‘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대중화, 학문화했다. 무엇을 ‘통으로 보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책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막힘 없이 훤히 보는 것, 본질을 파악하여 아는 것, 꿰뚫어 보는 것, 두루 섭렵하여 한번에 쥐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⁷ “조병호가 성경통독원에서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사역다운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그는 당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으로서, 한반도 남쪽 지리산 근처에 위치한 ‘외고’라는 작은 마을을 주말마다 찾아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사역지 외고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9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한 가정뿐이었다. 그는 1988년 한 해 동안 주말마다 그곳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일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었다. 그러나 혼자서 1년 동안 그 마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해 여름 1주간 정도 시간을 내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자고 설득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40여 명이 그 해 8월 둘째 주에 외고 마을의 모든 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시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 사역의 이름을 ‘뿌리기 사역’이라고 붙였다. 이 사역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것이었다.” (조병호,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4), 652. 진성봉, “초막절 성경통독 연구,”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2021), 51에서 재인용.

인식론의 한 방법으로 실제 눈으로 본다는 물리적 의미보다는 꿰뚫어 알아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통으로 본다’ 는 말을 분석적이고도 전체적인 사고를 통합한 방법으로, 서양의 사고방식 기반과 동양의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사고방식의 조화 속에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는 말로 사용한다.⁸ 즉 조병호는 전체와 부분을 함께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동시에 고려’ 하는, 양극화로 파편화 되지 않도록 ‘유기적 결합’ 을 성경 교육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을 ‘통’ 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조병호는 다음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강해와 통독이다. 강해와 통독은 서양적 특징과 동양적 특징의 강점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장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조병호는 설명한다. 한편,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통한 서구 신학의 영향과 함께 1980~1990년대 성경을 강해적으로 접근하면서 강해설교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성도들 또한 ‘강해’ 를 습득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0~2010년대 성경 전체를 읽는 ‘통독’ 이 확산되면서 개교회들이 성경통독을 진행했다.⁹ 상당수의 한국 교회가 성경통독을 계획하면서 성경 전체 ‘읽기’ 에 대한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조병호는 성경 접근 방법으로 강해와 통독을 50:50으로 사용하기보다는 100:100으로, 즉 충분한 강해와 충분한 통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 으로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 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예는 역사순 통독이다.¹⁰ ‘처음부터

⁸ 조병호, 『렛츠 통, 21세기는 통이다』, 62-64.

⁹ 조병호,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2012.3), 132-133.

¹⁰ “조병호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역사서인 ‘왕정 500년’ 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를 읽으면서 그

끝까지’ 혹은 ‘순차적으로’ 라는 의미는 서구적이기보다는 좀 더 동양적인 지식 연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 읽기’ 를 통독으로 바꾸어 말한다. 1960년대 후반 성경을 ‘통독’ 했다는 기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 4월 16일자 「매일경제」에 전 국회의원 김준연이 감옥에서 생활할 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신약성경도 1천2백 면이나 되는 것을 독일어로 통독하였다’ 라고 써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1974년 길선주 목사도 「경향신문」에 구약성서를 30번이나 통독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74년 「경향신문」에 이승훈에 대해서 ‘옥고 치르며 성경통독,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전서를 1백 번이나 통독했다’ 고 기록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독’ 이라고 말했다. 1976년에는 개인의 성경통독이 ‘교회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창학 목사는 어릴 적 서당 경험에서 배운 ‘통독’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군대 시절부터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창학은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을 교회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성경통독을 진행했다. 1977년도에는 출판을 통해 성경통독이 등장했다.¹¹ 이렇듯 성경 전체를 읽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동양의 책읽기 방식인 ‘통독’ 을 사용하여 ‘성경 통독’ 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병호는 여기서 ‘전체를 다 읽었다’ 라는 의미에서

사이사이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각각 때를 맞추어 읽으면, 그때의 시대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역사 기록을 읽으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기록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같이 읽는 것이다. 모세오경을 읽고, 왕정 500년의 역사와 함께 각각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기록인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페르시아 7권을 읽으면 구약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신약성경의 예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을 때 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물 흐르듯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진성봉, “초막절과 성경통독 연구,” 56에서 재인용.

¹¹ Ibid., 133-134.

한 걸음 진보하여 전체를 ‘역사순으로 통독’ 해야 함을 주장했다. 1988년 에드윈 하이든(Edwin V. Hayden)의 세 명의 공저 『A Through The Bible Reading Program』을 번역하여 출판했다. 제목은 『1년 완성 성경전서 읽기 안내』이다. 이 책은 성경 66권을 ‘역사순’으로 바꿔서 읽게 한다는 의미에서 ‘통독’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같은 맥락에서 조병호 또한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통독했을 때 진정한 성경의 풍요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동안 주제별로 편찬된 성경을 읽었다면, 오히려 책의 시기를 구분하여 역사순으로 읽음으로 성경의 통시와 공시를 자연스럽게 엮어보게 되고, 성경 66권이 한 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병호가 말하는 ‘성경통독’의 통 방법은 강해와 통독 방식을 함께 적용하고, 역사순으로 통시와 공시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꿰뚫어 이해한다는 것이다.

민경진¹³은 ‘통’과 ‘성경’을 붙여 교육 방법론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통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말은 ‘서구의 단절적, 분석적, 해체적 성경 읽기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평가한다. 즉 성경 읽기를 숲과 나무로 표현할 때, 그동안 ‘나무’ 연구에 주력해 왔기에 ‘숲’의 풍모를 만끽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평가했다. 이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를 성경 읽기에 더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통’이라는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경진은 그동안 신학계에서 ‘통시(diachronic)’, ‘공시(synchronic)’의 주도권 논쟁이 있어 왔는데, 조병호는 ‘통’이라는 언어로

¹² Ibid., 135.

¹³ 부산장신대 구약학 교수

이 둘을 흡수, 융합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통시적인 역사성을 말하면서
공시대적으로 만나게 함으로 학계의 논의를 매듭짓는 키워드라고 말한다.¹⁴

2) 통신학이란?

통신학이란 ‘통으로 보다’ 라는 의미를 성경 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으로 성경의 기록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관점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성경해석 방법론이다. 통신학은 전체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또는 통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뿐만 아니라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정, 지식과 실천 등 서로 배타적이며 양립하는 영역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균형과 공존을 섭렵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통신학은 서로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을 균형적 입장에서 보는 것을 지향한다. 조병호는 통의 성경 읽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경전 해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통신학에 앞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역사 순서대로 읽는 성경통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신학은

¹⁴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미출판 자료집 (2007.5.22), 7.

¹⁵ “통(通)신학이란 무엇인가? 조병호에 의하면, 통(通)신학이란 ‘통(通)’ 과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 해석의 방법론’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 공간, 사건, 시간 등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식과 관점들을 종합하여 이해의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해석 방법이 통(通)신학이라 할 수 있다.” 민경민,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탐라교회를 중심으로,” (드루신학대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 2018), 5에서 재인용.

¹⁶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72-74.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 해석들을 숙지하여 상보적이며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부분으로 봐서는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인물, 사건, 배경을 통신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모를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이해한다는 의미이므로 성경통독은 통신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통독이 곧 통신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¹⁷ 성경통독을 통해 얻어진 직관에서 출발한 새로운 통합적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경통독 관점은 첫째, 전체와 부분을 균형 있게 보는 관점. 둘째, 역사와 지리를 고려하는 관점. 셋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관점. 넷째, 동사와 명사를 함께 보는 관점. 다섯째, 발신자와 수신자를 고려하는 관점 등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통합된 관점을 찾는 것이 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의 중요한 통신학을 예로 들자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크게 아우르는, 성경통독의 모든 관점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야 나올 수 있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더 발전적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외에 통신학적 관점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통신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단편적인 하나의 해석으로 통일할 수 없는, 결정지을 수 없는, 깨닫고 인식하는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병호는 통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하나의 대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둘째,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찾는 것. 셋째,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 넷째, Text와 Context의

¹⁷ Ibid., 76.

관계를 조명하는 것. 다섯째,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방법론은 사실상 신학교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인식론이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에게 성경통독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학습해온 방식이 아니며 그들이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는 성경 스토리조차 역사순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에서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습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훈련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성도의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는 성경 전체를 알고 가르치는 일에 있으므로 통신학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통성경 One Story

조병호의 통성경, 통신학의 목적, 목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기록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읽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 신학자들의 공통된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특히 5세에서 20세에게 성경을 기록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야기 방식’이 효과적이다. 레너드 스윗은 성경의 75%는 내러티브이고 15%는 시이며 나머지 10%는 교훈이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¹⁹ 즉 성경은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소리가 담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이는 동사 ‘라이크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읽기’ 보다는 ‘소리로 부름’이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말한다. 레너드 스윗은

¹⁸ Ibid., 78-95.

¹⁹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14.

오래전부터 성경은 눈으로 보는 문자보다는 귀로 듣는 노래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눈으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방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말씀’ 보다는 ‘목소리’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로고스’, 혼자 조용히 읽기 보다는 공동체에 소리 내어 읽어준다는 의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노래 소리가 되고 이야기꾼의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²⁰

레너드 스윗은 성경을 절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절로 나누어서 외웠는데, 사실 성경은 절로 나뉘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 시, 찬송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로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말씀을 시작하든지 간에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통’ 이라고 정의한다.²¹

조병호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원 스토리라는 것을 오랜 시간 주장해왔다. 성경 66권은 각 권의 완결성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2000년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갈보리산 번제로 연결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때 일어난 첫 번째 유월절 어린양 사건은 1500년 후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이를 다시 통으로 보면 ‘마지막

²⁰ 조병호 편찬,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20), 서문.

²¹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90.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을 통해 제사장 나라 '제사' 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 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기독교의 핵심 예식이 되는 성찬식을 지금도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의 이야기부터 사복음서를 거쳐 바울이 성찬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이후 기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야기, 통으로 보아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즉 예수 십자가 원 스토리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to the cross from the cross' ,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향하고, 사복음서의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며, 사도행전 이후 신약은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병호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시간·공간·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이다.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을 따로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는지 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가정·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가정 이야기이고, 동시에 나라 이야기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다.

2. 목회자를 위한 통성경 교육의 목표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현황에 대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교회와 성경은 동전의 양면인데 목회자들이 외형적인 교회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생명력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강조가 약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성경에 대한 목회자들의 질문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목회자는 매일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²²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음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이 의미하는 큰 줄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은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목회자는 머릿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설교 준비가 수월하다. 어느 주제를 정했을 때, 모세, 다윗 등 비슷한 주제나 공통된 배경으로 묶을 수 있는 사건들이 떠올라야 한다. 한편 별개의 사건 속에서 공통의 배경을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절’을 찾으려 안 된다. 성경 전체를 그리면서 준비해가야 한다.

목회자들이 통성경 교육을 이수하면 다음 네 가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첫째,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전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요절, 예화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성경 해석을 시대 흐름에 따라 트렌드화 된 상황에서 부분적인 성경 읽기가 가속화되고 성경의 부분적 읽기는 편향성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편향성은 성경 해석에 제한과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어느 시대 흐름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서구 신학을 별다른 비판 없이

²² 조병호, “살아 숨 쉬는 성경 지식과 현실의 통찰력, 성경통독으로 키웁니다,” 『목회와 신학』 (2012.3), 48-49.

받아들이는 학습 방법 때문이기도 하다. 성경을 부분적이고 편향적으로 읽어온 것으로 인한 문제들을 통성경 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봄으로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 배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리더십 회복이다. 조병호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대 현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 이념과 주장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잘라 보던 기독교 내의 분열과 분리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볼 때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³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연합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단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맞추어 성경을 선택하여 읽어온 데에 있다. 하나의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근원적이며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진영으로 갈라서지 않고 한국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셋째, 성경을 개인, 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던 시야를 ‘민족과 나라’ 프레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즉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들 -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여기에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애굽까지 포함하여 생각을 확대할 때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재발견할 수 있다.

²³ Ibid., 74.

²⁴ 성경통독원,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미출판 자료집, (2008.6.2), 12-13.

여기에 더해 각 시대에 등장한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활동은 그 시대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미래 이야기로 연결해야 한다. 이러한 통성경 교육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나라, 즉 제사장 나라-제국-하나님 나라 프레임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패밀리 스쿨(Family School)을 목표로 한다. 목회자의 설교는 교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설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메시지의 해석은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화, 적용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의 근원적 해석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다른 해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읽고 듣고 이해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전한 설교를 들어도 성경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패밀리 스쿨을 진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From infancy' 대략 5세부터 성경을 이야기로 교육 받은 가정 이야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디모데 등이 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패밀리 스쿨을 통해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을 채워가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통성경 교육은 이렇게 목회자 개인의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회복과 가정의 패밀리 스쿨 형성에 좋은 대안이 된다. 이제 목회자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재를 살펴보겠다.

3. 목회자 통성경 교육 사례 (단기 프로그램)

1) 2005년 1회 한시미션 목회자 세미나

조병호는 ‘성경통독’ 대중화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2005년 1월, ‘21세기 성경 교육과 통독 설교’ 라는 주제로 제1회 목회자 성경통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 일반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형식과 달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통독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했다.²⁵ 목회자들의 균형 잡힌 성경 해석과 성경 읽기를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조병호는 그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가지고 목회, 설교의 실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통독 설교를 실제 진행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사항, 그리고 성도들의 피드백에 관한 내용을 전수하였다.

조병호는 교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 안팎으로 처해있는 문제의 원인이 지난날 목회자들의 편향된 성경 읽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목회자들의 성경 편식은 성도들의 성경 편식, 나아가 교회의 편향된 선택으로 이어져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²⁶ 1회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2회 목회자 성경통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설교 콘텐츠와 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통독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했다.

²⁵ 한국기독교공보, “‘성경통독’ 목회자 세미나,” 2005.1.15.

²⁶ 목회자신문, “목회자 통독세미나 주목 받는다,” 2005.1.15.

2) 2006년 통의 발전과 설교, 강의

조병호의 성경통독 운동은 ‘통’ 사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006년 6월, 하이기쁨교회 주일 예배에서 ‘탕(湯)과 통(通)’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한 음절로서의 ‘통’을 처음 표기화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하여 세계 교회에 제시할 대안, 성경을 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시대적 사명을 드러내는 설교였다.

… 우리 생각은 주로 통입니다. 통독, 통전적, 관통. 그래서 21세기 우리 민족은 통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서구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서 발견해 놓은 놀라운 결과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명제를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의 방식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 끝을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 방식은 미국과 서구 유럽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폭넓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사고의 양끝으로 전진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끝을 이해하며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와 계약의 깊이와 높이를 성경 안에서 우려내는 작업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 한국 민족은 세계사적 사명을 요청받고 있습니다.²⁷

²⁷ 2006년 6월 4일 하이기쁨교회 주일나잇예배 설교 녹취록 중 일부.

또한 2006년 12월, 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 1주년 기념포럼에서 조병호는 “Let’ s Tong for World - Let’ s Tong : East와 West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통’ 사상을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이때 강의한 목차 순서이다.²⁸ 이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인식론으로서의 ‘통’ 사상을 정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들어가며

- What’ s Tong?
- Modernism and Postmodernism / Wholeness and Totalism
-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에 대한 서양의 발견
- 아편전쟁 이후의 홍콩 그리고 21세기 한국

Forest and Tree

- (1) 시간 경계와 공간 경계
- (2) 중화, 헬라, 유대 사상 / 대륙, 반도, 도서 기질
- (3)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2. East와 West

- (1) Covenant와 횡적 사회, 절대음감과 Recipe, ‘분명히’
- (2) Relationship과 종적 사회, 직관음감과 Tong, ‘적당히’
- (3) Equality에 대한 동서양의 생각과 빌레몬서

3. spirituality and Sociality

- (1) 신비 / 이성과 감성의 임계점 - 고난과 영광, 말씀과 찬양

²⁸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4.

(2)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 양극화 문제

(3) 지식과 실천 / Ecumenical and Evangelical

나가며

- 21세기 중국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 한국 교회와 사회의 20세기 경험과 21세기 사명
- 20세기 한국의 산업화 - 근대화와 민주화
- 21세기 - Let' s Tong for World

2007년부터 조병호는 본격적으로 ‘통’을 강조한 강의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에는 ‘신구약을 통으로 보는 방법’, ‘신구약 통설교의 실제적인 예’, ‘성경통독을 인도하는 방법’을 강의했다.²⁹ 또한 2007년 11월에는 ‘왜 성경을 통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통으로 볼 것인가?’, ‘통설교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³⁰

3) 2007년 미래 목회자를 위한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007년 5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는 조병호의 ‘통’을 신학교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대중화시킨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병호의 성경통독은 ‘통성경’ 교육으로

²⁹ ‘제3회 목회자 통통세미나,’ 2007년 6월 25~27일,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개최.

³⁰ ‘성경을 보는 새로운 방법, 통통,’ 2007년 11월 19~2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경남목회연구소 주최로 개최.

대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21세기는 통이다. Let’ s Tong!” 이었다. 컨퍼런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까지 동서양이 각각의 문화적 특성의 기반 위에서 목회를 해온 상황에 대해 그 특징 및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는다. 둘째, 동서양이 동반자로 만나는 21세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구체화하여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미래교회 부흥을 위한 비전과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동과 서, 이성과 감성, 관계와 계약이 통으로 가기 위한 선언과 함께 21세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 받기 위해 한국 교회에 통의 방법론을 알린다. 넷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 의제가 지난 100년을 이끌어온 것과 같이 2007년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미래 100년을 선도할 원동력을 마련한다.³¹

조병호가 통을 인문학적으로 정리한 책 『통이다 렛츠 통』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성경 해석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동서양의 방식을 ‘통’으로 볼 때 문맥의 의미와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조병호는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³²에서 성경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 방법론을 세계 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말했다. 컨퍼런스의 강사로 참여한 레너드 스윗³³은 서구 기독교 침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³¹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4.

³² Ibid., 191-193.

³³ 미국 드루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조지 폭스대학 명예교수이다.

선교적(Missional)이고, 좀 더 관계적(Relational)이며, 좀 더 성육신적(Incarnational)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호는 여기서 좀 더 ‘관계적’ 이어야 한다는 것은 서구의 계약 중심 사고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과 극복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한편 한국 교회는 계약 중심의 서구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계 중심의 동양적 방식의 성경 읽기를 해왔다. 다시 말해 서구의 계약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의미의 기반 위에서 동양의 관계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의미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한 인터뷰에서 계약과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은 계약과 관계의 측면을 모두 가진 책이다. 성경의 계약적 요소는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진 관계적 측면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관계를 맺는 삶’ 이었는데 말이다. 이유는 지금껏 기독교의 주류였던 서양이 성경을 계약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양은 관계적이다. 관계성이 부족했던 서양 기독교가 동양 교회를 원하는 이유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계약과 동양의 관계가 동반자로 만나야 한다.³⁴

이는 단지 동서양의 동반자적 입장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 읽기와 해석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기독교 미래 교육을 위해 인식 방법론으로서의 ‘통’ 을 설명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 이해가 깊어지면 사회의 분열과 불평등, 편견 등을 오히려 성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이에 레너드 스윗 또한

³⁴ 기독교신문, “성경의 핵심가치와 통하라,” 2007.7.4.

“통독은 세계 교회에 소개할 만한 성경읽기의 방법론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라고 강조했다.³⁵

조병호는 컨퍼런스에서 ‘통’을 설명하기 위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성경을 통으로 볼 때 비로소 노아의 홍수 때의 빗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구의 신학으로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은 이원론적 해석의 대상으로 심판의 도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보면 홍수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아팠던지 눈이 눈물에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병사들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희생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쏟았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심판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성이라는 국지적인 심판 아래 예레미야가 그토록 아파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다면, 온 세상이 물론 심판 받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으로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예루살렘을 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보인다면, 홍수라는 심판의 도구로 온 세상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³⁵ 교회연합신문, “통독은 성경이해의 완전한 방법,” 2007.6.3.

짐작해보게 되는 것입니다.³⁶

이때 처음으로 조병호의 ‘통’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1만여 명에 가까운 참석자와 한국 교회에 인식시켜준 중요한 시점이었다.³⁷

레너드 스윗 또한 컨퍼런스에서 ‘통’ 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구절’ 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통’ 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사실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절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 으로 읽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⁸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이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운동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학교는 물론 목회자 세미나, 교회 교사 세미나 등 통성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4) 2008년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한국 신학자 서울선언은 2008년 6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경을 통한 재정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 140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된

³⁶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86.

³⁷ Ibid., 부록 참조-언론보도 목록.

³⁸ Ibid., 90-91.

선언이다. 신학자 140명이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신학과 신학교육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회개하고 성경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일보는 6월 3일자(25면)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그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헤아리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성경 읽기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서양의 분석적 해석과 동양의 직관적 해석의 장점을 살려 정경적, 심정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제안했다 ... 이번 서울선언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 퇴색과 상대화된 근본 원인을 자신들의 파당적 신학 논쟁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서 찾아 세계 신학계에 고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⁹

신학자 서울선언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 교회가 주체적인 성경 읽기 방식을 배양하고 성경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고 일치되는 모습을 먼저 실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경에서 벗어난 목회와 신학의 오류에 대하여,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찾아내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근간을 다져야 한다는 사명을 재확인하였다. 다음은 서울선언 취지문의 일부 내용이다.⁴⁰

바르멘 선언(Barmen Theologische Erklärung)이 나치로 인해 이교화된 유럽 기독교를 성경으로 바로 세웠다면, 이번

³⁹ 성경통독원,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1.

⁴⁰ Ibid.

서울선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랑 속에서 상대화 되어가는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을 통통한 재정향(ReOrientation)’이란 단지 현재의 한국 기독교 현실에만 제한된 내용의 선언이 아니며, 21세기 초두에 있는 세계 기독교를 향한 선언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20세기 서구 신학을 학습해온 수신자였다면 앞으로 발신자로서 그동안의 서구 신학의 수용 위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성경 읽기 방식, 즉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인 성경의 해석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기여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편향적 읽기와 그에 따른 성경의 상대화라는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그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통으로 보는 성경읽기 방법이라는 것이다. 통의 방법론을 통해 부분적 성경 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⁴¹

서울선언은 신학자들의 기독교 미래 교육에 대한 대안을 말했지만, 사실 신학생들의 미래가 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현장에서 지금 성경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하고 대안을 세우는 선언이었다.

4. 렉처리 코스 과정

조병호의 ‘통’ 방법론은 1989년부터 성경통독을 이끌어 온 하나의 결과로서 2007년에 인식론의 한 방법으로 주장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

⁴¹ Ibid., 17.

방법론을 성경 교육, 설교를 평생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실행함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는 것이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⁴² 따라서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통성경 렉처러 코스’가 정착된 것이다.

성경통독 렉처러 코스(Bible Tongdok Lecturer Course)란 성경통독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에게 일정 기간 성경을 통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코스이다. 2009년 9월에 1기 모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2기를 개최했다. 렉처러 코스는 처음 ‘성경통독 인도자 학교(Bible Tongdok Leader Academy)’로 시작했다. 성경통독 인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시켜 개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목표를 갖는다.

교육 과정은 크게 수강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주 과정이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진행되는데, 대략 하루 3강의씩 총 36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후반 과정에는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어 그룹별로 성경통독과 통성경, 통신학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얼마나 통성경을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6일 인텐시브 과정이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씩 2주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24강으로 진행한다. 강의를 연속해서 들음으로 집중도가 높고, 단기 과정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편 12주 코스에 이루어졌던 ‘과제 학습’이 인텐시브 과정에서는 시간 관계상 심도 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5일 인텐시브 과정이다.

⁴² 조병호, “살아 숨 쉬는 성경지식과 현실의 통찰력, 성경통독으로 키웁니다,” 『목회와신학』, 5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강의가 진행되며 일주일 과정은 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그간의 12주 과정이나, 2주간 숙박이 어려웠던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른 과정과 달리 지역 교회 목회자들의 친밀도가 높아서 원활한 수업 진행에 장점이 된다. 반면 교육 장소와 기간이 목회 현장의 연장선에 있어서 교육의 집중도가 낮으며,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 가지 코스 외에 ‘렉처러 포스트 과정’이 있다. 정규 코스를 이수한 이후 다시 참여하는 과정으로 전체 과정을 참여하거나, 가능한 날짜, 또는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보강 수업과 같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대략 신규 목회자와 포스트 목회자 수가 1:1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5. 렉처러 코스 교육 현황

렉처러 코스는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교단을 초월하여 모집한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렉처러 코스를 이수한 인원은 총 1,328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남녀, 직분, 교단, 지역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남녀별

인원	남	여
1,328명	914명	414명
100%	68.8%	31.2%

2) 직분별 (지원 당시 기준)

구분	명수	비율
담임목사(담임사관)	561명	42.3%
목사(사관)	307명	23.1%
강도사, 전도사	137명	10.3%
사모	191명	14.4%
선교사	85명	6.4%
기타(특례)	47명	3.5%

3) 교단별

구분	명수	비율
장로교 통합	414명	31.2%
장로교 합동	175명	13.2%
장로교 고신	162명	12.2%
장로교 기장	19명	1.4%
감리교	171명	12.9%
성결교	142명	10.7%
침례교	41명	3.1%
백석 대신	50명	3.7%
기타	154명	11.6%

4) 지역별

구분	명수	비율
강원도	35명	2.6%
경기, 인천	337명	25.4%
서울	201명	15.1%
충청권	139명	10.4%
경상권	216명	16.2%

전라권	213명	16%
제주도	33명	2.5%
해외	108명	8.1%
기타(군지역 등)	46명	3.7%

직분별 통계는 지원 당시의 기준이었으므로 현재는 변동이 있겠으나 담임목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42.3%의 높은 비율로 목회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 책임자로서 성경 교육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렉처러 코스 지원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① 성경의 숲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늘 아쉬웠던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장수를 채우는 일에 치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알고 있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한 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공부할 때 각 권 따로따로 공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 배경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② 말씀을 통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목회자들이 책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데 힘이 듭니다.
현지인들의 수준에 적당한 성경연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싶습니다.”

“다음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야 하는 탄성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 선교사로 섬기는 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자 성경 번역 세미나에도 참석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③ 통성경, 통성경학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통성경 강의를 통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지,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따라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성경을 통한 양육과 성경공부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성경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통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역사순으로 배열된 점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는 통성경의 관점은 교회가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였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다른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였습니다.”

④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목사가 된 후 기본적인 텍스트인 성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따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해보기도 했지만 단편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갈급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통독, 말씀묵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회 현장에서 제가 공부한 목회상담과 함께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성경의 역사적 배경 등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통합하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경 배경적 측면과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병호 박사님 책과 영상으로 도움을 받아 왔는데 통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원합니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 등을 다시 한 번 알고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고자 합니다.”

⑥ 설교를 통해 성경을 풍요롭게 전하고 깊이 있는 목회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성도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통해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파편화된 성경 이해로 인해 느끼는 부족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⑦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 성경 전문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균형있게 통으로 배워 성경을 꿰뚫어
읽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무조건 읽는다고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올바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늘 새로운 성경을 통성경의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배우고 훈련하여 깨닫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⑧ 조병호 박사의 교재, 영상을 통해 지원.

“조 박사님의 통세미나를 듣고 성경의 전문인이면서도 전문성이 없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이 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지원합니다.”

“『성경과 5대제국』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읽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배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추천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통성경학교’ 인터넷 강의를 통해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을 보는 통찰력에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도전이 되어 지원합니다.”

“통성경학교를 수강하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핵심 키워드를 배우고, 7트랙 핵심 질문과 답, 20마당의 하나님 마음, 40개의 성경 줄기 등 성경의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고 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접목해보는데, 즐겁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렉처러 코스 참가자들은 교단, 지역 등에 관계없이 ‘통성경 교육’ 하나를 목적으로 모였으며 지원 동기 또한 성경의 깊은 이해와 배경사, 풍성한 목회 사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경통독원의 렉처러 코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는 데에 있으며, 교단, 지역, 학연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한 응집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6. 지역 렉처러 코스 사례 - 호남지역 렉처러 코스(과역교회)

렉처러 코스는 주로 가평에 위치한 성경통독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의 목회 활동으로 가평과 거리가 먼 지역은 쉽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또한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경우에는 더더욱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거리와 시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통독원은 기존의 프로그램 일정표와 동일하게 ‘지역 렉처러 코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렉처러 코스는 성경통독원에서의 숙박을 겸하는 것과는 달리 오후 프로그램을 마치면 다시 교회로 가게 된다. 따라서 교회를 비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전적으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지역 렉처러 코스는 그 지역의 교회 한 곳을 교육 장소로 섭외하게 되는데 그 교회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이는 목회자들의 교단 분포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지역 목회자들이 통성경 교육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여러 지역 렉처러 코스 중 2022년 4월에는 필자가 섬기는 과역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필자는 최대한 이 기간에 전남 지역 목회자들에게 홍보했고, 렉처러 코스 이후 지속적인 ‘통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목회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성경통독원은 렉처러 코스를 이수한 목회자들과의 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지역 렉처러 목회자들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통성경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48기 호남지역 통통성경 렉처러 코스>

- 일시: 2022년 4월 18일(월) ~ 20일(수) / 4월 25일(월) ~ 27일(수)
- 장소: 과역교회 (정순오 목사 사무)
- 공동주관: 성경통독원, 과역교회
-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강도사, 전임전도사

<그림-1> 호남지역 렉처러 코스 홍보지

48th
 통통성경 조병훈의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전문 강의
 [통통성경 지도자 양성 과정]
통통성경 렉처러코스
TONGBIBLE LECTURER
호남지역

TEXTBOOK 메인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통성경 학교, 통성경학교 워크북

CERTIFICATE 자격증

자격증과 수료하신 목사님의 사진을 넣은 '통성경학교 포스터'를 드립니다.

과정안내(총 6일, 10:00~16:00)
 2022.4.18(월)~20(수)
 2022.4.25(월)~27(수)
과역교회(정순오담임목사)
 * 전남 고흥군 과역면 무궁화길 25

7. 해외 렉처러 코스 사례 - 미주 렉처러코스 (잭슨빌한인교회)

미국 한인교회에 통성경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목회자 렉처러 코스를 진행했다. 날씨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로 와야 했기 때문에 한국처럼 2주간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주간을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서 강의가 진행됐다. 일주일 코스는 강사나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긴 시간 고도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통성경 교육 방법으로 성경 전체 흐름을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통성경 교육에만 집중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일주일 코스는 2013년 11월에 진행된 제주도 렉처러 코스 이후 두 번째이지만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시스템으로 새롭게 세팅 된 일주일 과정은 처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주일 코스는 이후 한국에서도 지역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고 있다.

〈1기 미주 통성경 렉처러 코스〉

- 일시: 2022년 6월 27일 ~ 7월 1일 (4박5일)
- 장소: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허병옥 목사 시무)
- 주관: 통독원
- 대상: 목사, 사모, 선교사, 강도사, 전임전도사
- 교재: 통성경길라잡이, 통성경길라잡이 지도자지침서+PPT

통성경학교, 통성경학교 지도자지침서+PPT, 통성경학교 워크북
성경통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기타 소책자

· 프로그램:

시간	월	화	수	목	금
9:30-10:40		강의4	강의9	강의14	강의19
10:40-11:00		휴식			
11:00-12:00		강의5	강의10	강의15	강의20 / 수료
12:00-1:30	1:30 등록	점심식사			
1:30-2:40	2:00 강의1	강의6	강의11	강의16	
2:40-3:00		휴식			
3:00-4:30	강의2	강의7	강의12	강의17	
4:30-4:50		저녁식사			
7:00-8:30	강의3	강의8	강의13	강의18	
		휴식 & 과제			

<그림-2> 미주 렉처러 코스 홍보지

세계적인 성경학자 통박사 조병호의 렉처러 코스

미주 성경통독 1기 전문강사 과정

일시: 2022년 6월 27일(월)~7월1일(금)
2:00pm~12:00pm

장소: 잭슨빌 시온침례교회
(허병옥 목사, 미주 통독바이블 네트워크 총무단장)

* 2950 Belfort Road, Jacksonville, FL 32216
TEL: 386-235-7485 / tamuning@hotmail.com

미주 렉처러 코스 이후에는 <미주 통독 바이블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면서 통성경 사역을 위한 미주 지역 유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Ⅲ. 렉처러 코스 교육의 실제

1. 목회자 성경 교육을 위한 통성경 방법론

렉처러 코스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통성경’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통이 무엇인지, 왜 성경 이해와 해석에 ‘통’이 필요한지를 성경 스토리를 기반으로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 누구나 주석을 통해서 성경의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나, 성경 전체를 교육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전체’라는 범위는 많은 부담도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아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필수 요건임에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편성된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 제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달할 수 있을가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교육 단계에 따른 강의의 실제

1단계⁴³ - 통성경 기초

⁴³ 렉처러 코스의 학습 단계는 7단계이다. 1단계 ‘통성경 길라잡이’, 2단계 ‘십자가 원 스토리’, 3단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단계 ‘하나님 마음’, 5단계 ‘성경기도’, 6단계 ‘성경전도’, 7단계 ‘성경통독’이다. 그러나 1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1단계 학습 과정에서 조병호는 ‘통’, ‘통성경’, ‘통신학’ 등 통이라는 인식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 방법론에 대한 강의는 렉처

1) Why biblical?

‘성경적 범위’ 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 한 권으로 인간사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보는 훈련이다. 즉 동서양적, 진보·보수적,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모세의 탄생을 두고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는 것,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논쟁, 예수님의 ‘정치적’ 죽음, 다윗의 신앙적, 정치적, 문학적 삶 등을 총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2) Why tong?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서로 상반된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들을 예시로 들어본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들, 즉 융통성 vs 매뉴얼, 동사 중심 vs 명사 중심, 전체적 vs 분석적, 관계적 vs 계약적 등 서로 다른 것을 묶어서 꿰뚫어 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Bic frame의 주제들, ‘시간과 공간’, ‘민족과 국가’, ‘율법과 선지자’, ‘제국과 제사장 나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을 학습하여 관점의 깊이와 넓이를 최대한 확장하는 훈련이라 하겠다. 그동안 서양은 주로 경전을 이성적으로 대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봄에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인 서양의

러 코스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학습 키워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1단계로 시작했다. 그래서 ‘통 성경 길라잡이’ 과정은 3단계로 편의상 표기한다.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과 동양의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을 통으로 읽어야 한다. 즉 경전적(scriptural) 접근과 심정적(emotional) 접근을 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방식만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올바르게 다가가기 어렵다. 이 두 방식을 상보적인 것으로 볼 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문자와 음성’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과도 연결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문자와 음성을 모두 사용하여 읽다 보면 전체 맥락 안에서 성경의 내용이 더욱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Why chronological order?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는 말은 각 권의 시작과 끝이 있지만 66권이 모두 연결되어 한 권이 갖는 완결성을 갖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 편제는 장르별로 되어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 예언서 모두 각각 한곳에 모아놓은 형태이다. 그런데 장르별 성경 편제에 따라 읽어가게 되면 역사 흐름이 엇갈리고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섭리도 깨닫기 어렵다.⁴⁴ 통 방법론의 기초는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역사 순서를 따라 읽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다. 그래야 ‘ 꿰뚫어 본다’ 라는 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인식이 안되면 한두 구절의 자의적 해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역사순 정리를 통해 공시(synchronic)와 통시(diachronic)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대(generation)’ 라는 주제를 가지고

⁴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2.

만나세대, 미스바세대, 재건세대, 제자세대 등 동시대 공감대를 갖는 대략 30년 시기를 묶어서 성경의 공시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역사서와 예언서’ 주제를 가지고 B.C.8세기 이사야 선지자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람, 앗수르, 북이스라엘 등 나라와 왕과 선지자를 묶어서 살펴야 동시대 국제 정치와 안보, 외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통시적 주제들을 보면, 족보, 언약, 성전, 지파, 도시 등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는 주제들이다. ‘성전’은 다윗 때 성전, 솔로몬 때 성전,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의 성전, 학개와 스가랴 때의 성전,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성전을 한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순에 따른 정리는 공시와 통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 TongBible Semiotics

통성경 세미오틱스란 통성경의 기초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개념을 가진 지시어들을 서로 연관하여 통찰한 새로운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개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의미를 창출해 내는 독창적이고 총체적인 해석을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략 12개의 카테고리를 학습 주제로 삼는다.

<표-1> 조병호의 렉처러 코스 강의안

1	통이란	Biblical-all category, Tong? - ATheHis Kingdom - 2000 Time, 1500 Space, 5000 Person - Compare, Critique, Creative - Whole story, Analysis, Recitation, Meditation - Signs, Image, Symbol, Identity
2	책이란	Text Book, Classic, Cannon
3	성경은	부분과 전체, 문자와 음성, 경전과 믿음 심정과 경전, 한 영혼과 모든 민족
4	성경과 질문	트랙 1~7 분위기 질문 등
5	성경과 통	Time and Space, Nation and State, Law and Prophet Empire and A Kingdom of Priests 등
6	성경과 패러다임	Law, Temple, New Covenant, Fulfillment, Church 등
7	성경과 십자가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경영키워드
8	예수 이름	예수 민족, 예수 국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성전/교회
9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5가지
10	예수 5대 목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5가지
11	끝까지 가져갈 기초	Faith, Worship, Church, Tithe, Bible 등
12	꿈의 삶, 선교	A Dream for ~ 나, 가정, 이웃, 민족, 열방

위 표에서 8번 ‘예수-성전’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성전은 거룩함과 제사의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인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경영이기도 하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 법궤, 다윗 성전, 에스겔의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셨고, 설계도대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법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즉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명절’이다. 이 명절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된다. 성전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가 되었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이어지며,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몸이 된다.⁴⁵

12개의 통성경 세미오틱스는 본격적인 성경통독을 들어가는 데 있어 ‘관점 정리’에 도움이 된다. 목회자들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신학 사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성경 관점을 통일하여 학습에 들어가는 것은 렉처리 코스의 중요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 통성경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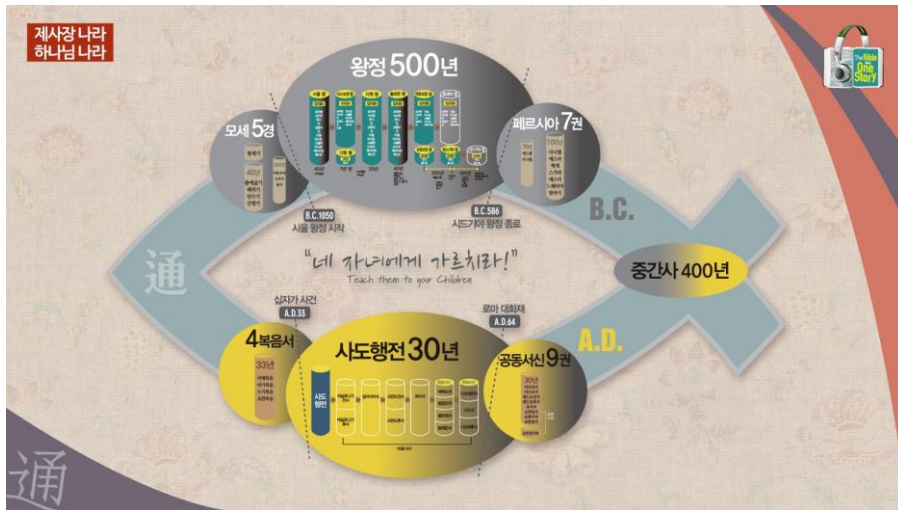
1단계와 2단계에서 통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면, 3단계는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 스토리를 역사 순서에 따라 살펴보며 다시 1단계, 2단계를 재확인하며 적용해보는 단계이다. 조병호는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를 참고하여 강의하는데, 통으로 본 성경의 풍성함과 심도 있는 해석을 들을 수 있다. 평면적으로 읽었던 구절들이 성경

⁴⁵ 조병호의 렉처리 코스 강의 중에서 일부.

전체에서 어느 위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조병호는 ‘통성경 7트랙’을 만들었다. 익투스 그림 위에 동그라미 7개로 성경의 가장 큰 프레임을 구성하여 성경 이해의 기초 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림-3> 통성경 7트랙⁴⁶



구약을 크게 세 개의 제사장 나라 트랙으로, 신약을 세 개의 하나님 나라 트랙으로, 그리고 그 사이 신구약 중간사 트랙을 포함하여 7개 트랙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만들었다. ‘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이다.⁴⁷ 이 틀은 성경의 분위기가 어떻게 크게 바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장르별 편재에 따른 성경 이해의 한계를 벗어날

⁴⁶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서울: 통독원, 2020), 61.

⁴⁷ Ibid., 66-67.

수 있다.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는 통성경 7트랙에 따라 성경을 52개 제목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순으로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52개 제목은 성경 범위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만 외워도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표-2>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52개 제목⁴⁸

통성경 7트랙	52과 제목		성경범위
통트랙-1 모세5경	1	원역사	창1~11장
	2	족장사	창12~36장
	3	입애굽과 민족	창37~50장
	4	출애굽과 제국	출1~18장
	5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출19~40장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
	7	만나세대	민
	8	만나학교 졸업	신
	9	약속의 땅 입성	수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삿
	11	교육의 성공 사례	룻
통트랙-2 왕정500년	12	미스바세대	삼상1~7장
	13	왕정의 시작	삼상8~31장
	14	세 번의 기름 부음-제사장 나라 충성도	삼하1~10장
	15	하나님의 종 다윗	삼하11~24장, 왕상1~2장

⁴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6-9.

	16	솔로몬과 시가서	왕상3~11장, 잠, 아, 전, 시
	17	하늘 보석 읍	읍
	18	남북 분열 왕조	왕상12~22장, 왕하1~ 14장, 암, 호
	19	요나의 기적	욘
	20	북이스라엘 멸망	왕하15~20장, 사1~39 장
	21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사40~66장, 미
	22	남유다 멸망	왕하21~23장, 습, 합, 나, 율
	23	70년의 징계	왕하24~25장, 렘, 애, 읍
	24	역대기-재건세대 선물	대상, 대하
통트랙-3 페르시아7권	25	포로민 설득-유대인의 시작	겔
	26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단
	27	성전 재건-귀환과 투자	스1~6장, 학, 습
	28	에스더의 파티	에
	29	에스라의 권한	스7~10장
	30	성벽 재건	느
	31	고백과 침묵	말
통트랙-4 중간사400년	32	헬라 제국과 중간사-모세오경의 세계화	
	33	헬라 제국과 중간사-마카비 혁명	
	34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왕 겐 대체사장 통치	

	35	로마 제국과 중간사-헤롯 왕조	
통트랙-5 4복음서	36	예수님의 탄생	마, 막, 눅, 요
	37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마, 막, 눅, 요
	38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마, 막, 눅, 요
	39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 막, 눅, 요
	40	마지막 일주일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마, 막, 눅, 요
	41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마, 막, 눅, 요
통트랙-6 사도행전30년	42	열리는 제자 시대 -2, 3,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행1~12장
	43	바울의 1차 전도여행-예루살렘 공회	행13~15:35
	44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행15:36~18:22, 살전, 살후, 갈
	45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행18:23~19장, 고전, 고후
	46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행20~23장, 롬
	47	죄수 바울 로마 도착	행24~28장
	48	교회론과 기독교론	엡, 빌, 골, 몬
	49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딤후전, 딤후, 딤후
통트랙-7 공동서신9권	50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히, 약, 벧전, 벧후, 유
	51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요일, 이, 삼서
	52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계

특히 조병호는 성경 해석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신학적 사상들, 용어들을 통으로 쉽게 풀어내기 위해 ‘통 프레임’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조병호의 ‘통 프레임’은 신학을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그림, 이미지로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성경 교육 도구이다. 이는 ‘통 신학’으로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21세기 성경 교육의 대안이다. 다음 <그림-4>는 10여 개의 ‘통 프레임’ 중 하나이다.

<그림-4> 통 프레임 -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위 <그림-4>는 출애굽, 유월절, 어린양, 제사장 나라, 언약, 제사, 새언약, 성찬식, 십자가, 예배, 성령 등, 신학적 주제어가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이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 1500년 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을 기념하도록 하셨으며, 제사장 나라 ‘제사’ 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 로 바뀌는 기점을 한 눈에 보도록 그려진 그림이다. 조병호의 ‘통프레임’ 은 수많은 신학적 용어들의 나열을 얼마나 통성경으로 집합하여 스토리 핵심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찬식을 행함에 있어 성도들에게 성찬의 역사와 의미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교안이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 렉처리 코스는 짧은 기간 집중해서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신도 학습과는 달리 목회자는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에 들어간다. 따라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은 아래와 같은 범위로 묶어서 한 강의에 평균 1시간 20~30분을 사용하여 총 11강의, 약 16~17시간을 집중 학습한다.

<표-3> 렉처리 코스 - 통성경 길라잡이 교육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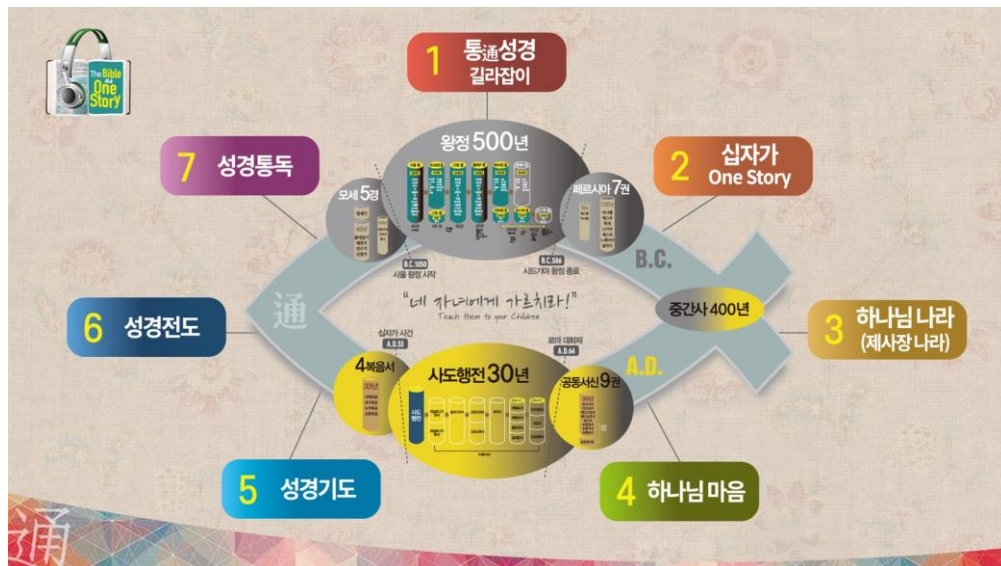
강의	통트랙	<통성경 길라잡이> 범위
1	모세오경 1	1-3과
2	모세오경 2	4-8과
3	모세오경 3	9-11과
4	왕정500년 1	12-15과
5	왕정500년 2	16-21과
6	왕정500년 3	22-24과
7	페르시아7권	25-31과
8	중간사400년	32-35과
9	사복음서	36-41과
10	사도행전30년	42-49과

11	공동서신9권	50-52과
----	--------	--------

4단계 - 통성경학교 ; 십자가 그 순간

3단계 『통성경 길라잡이』 52과를 학습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에 따라 통 관점으로 스토리를 살펴보았다면, 4단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엮은 교재 『통성경학교』를 가지고 통성경학교 과정을 첫째, 십자가 원 스토리를 살펴보고, 둘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고, 셋째, 하나님 마음으로 살펴보고, 넷째, 성경을 통한 기도로 살펴보며, 다섯째, 성경을 통한 전도로 살펴보고, 여섯 번째로 성경통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단계로 52과에 걸쳐 학습이 진행된다.

<그림-5> 통성경학교 학습 단계



‘십자가 원 스토리(One Story)’ 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The Moment’ 를 통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To the Cross, The Cross, From the Cross’ 라는 핵심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성경 66권이 왜 한 권으로 완결성을 갖는지, 왜 통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십자가 원 스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왜 ‘성전 휘장’ 이 찢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4개의 포인트를 거쳐 십자가 원 스토리를 담아낸다.

첫째,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다. 찢어진 성전 휘장을 설명하려면 처음 휘장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따라서 모세 갈대 상자 이야기, 십계명 돌판과 성막 제작 이야기, 휘장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때 ‘제사장 나라’ 가 무엇인지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다. 움직이는 성막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1000년을 이어간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방인의 딸의 중요성을 기도로 선언한다. 이때 지성소와 대제사장, 도피성과 대제사장과의 관계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의 어린양이면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예고한다는 것을 짚어 준다. 셋째, 예수 십자가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건물 성전에서 ‘우리 몸’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때 ‘하나님 나라’ 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신분, 공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한다.

이는 단지 성경을 ‘구속사’로 연결하여 본다는 차원보다 한 단계 더 깊고 넓은 관점으로, ‘통성경’ 방법을 통해 성막에서부터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까지 원 스토리로 살펴본 것이며,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는 과정, 그리고 건물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구원사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의 십자가 원 스토리 커리큘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을 배움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된다.

5단계 - 통성경학교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구약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주제는 ‘제사장 나라’이며, 신약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조병호는 7트랙마다 질문을 만들어 대답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파악하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개 질문에는 핵심 인물과 사건을 넣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대비점이 있는지 찾아서 유기적 관계를 하나의 답으로 연결하고, 각 단계를 대표하는 분위기를 배움으로 해당 분위기가 성경 해석의 기초 배경이 됨을 학습하도록 한다.

<표-4> 통성경학교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질문과 분위기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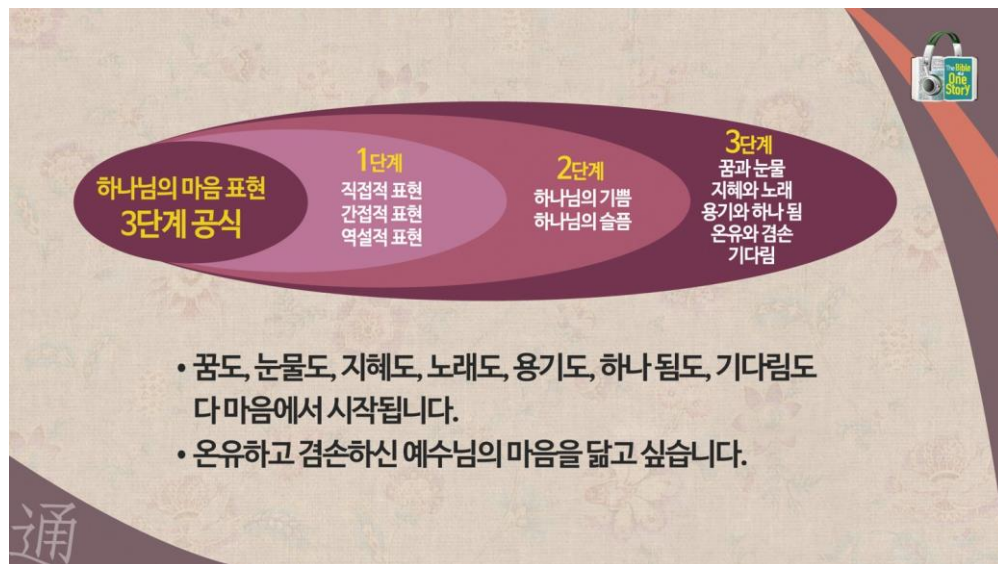
트랙	질문	분위기
모세5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
왕정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페르시아7권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중간사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
4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
사도행전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공동서신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⁴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62-67.

6단계 - 통성경학교 ; 하나님 마음

6단계 ‘하나님 마음’은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에 따라 20개 마당으로 구성하여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 또한 성경 전체 스토리가 전체 되어야 가능한 학습이다. 맥락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절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마음 강의를 진행하거나, 우리의 요구와 간구에 방점을 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한탄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긍휼이 불타는 마음 등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통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학습한다. 조병호는 20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한다.

<그림-6> 통성경학교 - 하나님의 마음 표현⁵⁰



⁵⁰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143.

1단계는 하나님의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역설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천지 창조 때 “심히 좋았더라” (창 1:31)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하나님 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사사 시대에 나오미의 며느리 룯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룯 2:13)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의 간접적 표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욘 4:11)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역설적 표현이다. 2단계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이다. 2단계는 직접 표현과 간접 표현에 담기는데,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6)라는 표현은 직접 표현된 하나님의 슬픔이다. 3단계는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 됨, 은유와 겸손, 기다림 등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표현을 다룬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라는 말씀은 온유한 마음의 직접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렇게 성경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3단계 교집합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 20마당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통성경 길라잡이』 52과 제목을 통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마음 20마당 또한 큰 틀에서 정리된 제목이다. 조병호는 20마당 제목을 가지고 통성경 노래(한글, 영어)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대중화시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다.

⁵¹ Ibid., 144.

<표-5> 하나님 마음 20마당 제목

마당	제목	마당	제목
1	하나님의 마음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	열방을 향한 꿈	12	기쁨을 위한 탄생
3	만나세대	13	한 영혼 사랑
4	신앙 계승	14	용서를 향한 열정
5	천년모범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6	마음과 지혜	16	열리는 제자 시대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8	절망 앞에 선 희망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10	재건 공동체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7단계 - 성경 기도

7단계는 ‘성경 기도’ 를 학습하는 단계로, 기독교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독교 목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경을 통한 기도인지를 성경 인물 10명을 예시로 살펴보는 과정이다. 성경 인물 10명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배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독교인이 드리는 성경 기도가 무엇인지 그 실례를 배운다. 성경 기도를 통해 통성경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이 과정 또한 성경 전체 스토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렉처러 코스의 교육 과정에 있어 ‘통성경 길라잡이’ , ‘십자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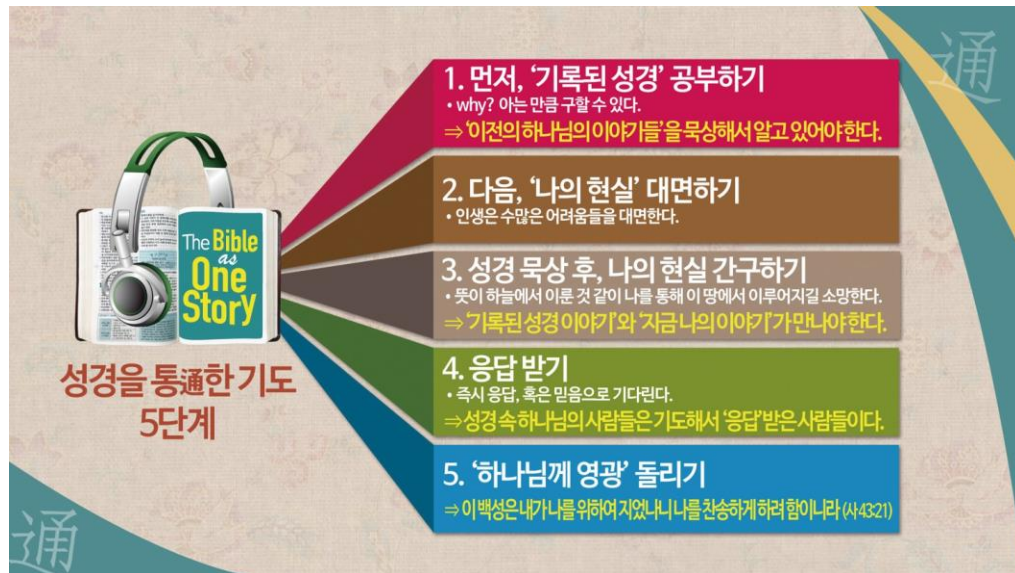
스토리’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하나님 마음’ 단계를 지나고 ‘성경 기도’ 를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회자들에게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일 수 있으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개교회 성도들에게 교육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적 기도를 했는지 바르게 배워야 한다. 따라서 내용은 쉽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상고해야 하는 학습 단계라 말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 기도’ 단계의 학습 목적과 목표를 위해 초식동물의 예를 들어 기독교의 묵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즉 초식동물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후 포식자가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되새김질을 하여 소화시킨다. 반추동물은 보통 하루에 3만 번, 12시간 이상을 씹고 되새기는데 만약 대량의 풀을 먹지 않으면 새김질을 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묵상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인데, 깊이 생각하려면 충분한 성경 이야기가 있어야 가능하다.⁵²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지 못하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 기도’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학습하여 충분히 반복하고 익힌 뒤, 조병호가 제시한 ‘성경을 통한 기도 5단계’ 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⁵³

⁵² Ibid., 208.

⁵³ Ibid., 210-211.

<그림-7> 성경을 통한 기도 5단계



1단계는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이다. 자신이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부하고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나의 현실' 대면하기이다. 인생은 누구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회피하지 말고 대면할 줄 알아야 한다. 3단계는 '성경 묵상 후' 나의 현실 간구하기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따라서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이야기'가 만나야 한다. 그 기반 위에서 나의 현실을 간구해야 한다. 4단계는 '응답 받기'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즉시 주실 수도 있고,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혹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 살펴본다. 5단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단계에 따라 ‘성경 기도’ 는 다음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표-6> 통성경학교 - 성경 기도⁵⁴

인물	성경	통독성경 범위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창 24:12~14	제8일
모세의 기도	출 32:12~13	제30일
한나의 기도	삼상 1:10~11	제88일
다윗의 기도	시 19:7~10	제143일
솔로몬의 기도	왕상 8:53~54	제115일
예레미야의 기도	애 1:1	제220~221일
느헤미야의 기도	느 1:8~9	제276일
예수님의 기도	마 4:1~4, 마 26:39 마 6:9~13	제281~282일, 제289일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눅 2:28~32, 행 7:54~60	제296일, 제318일
바울의 기도	갈 2:19~20	제324일

예를 들어 ‘한나의 기도’ 를 먼저 통독한다. 이 기도를 가지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순서에 따라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1단계 -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 : 이는 한나가 천 년 전에 살았던 창세기의 사라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사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 고 믿었다. 또 하나 한나는 모든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나실인 법과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을

⁵⁴ Ibid., 305-306.

구별하여 헌신한 이야기를 알고 한나는 아들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기를 서원한다.

•2단계 - 다음, ‘한나의 현실’ 대면하기 - 브닌나의 행동과 자신의 불임 문제.

•3단계 - 성경 묵상 후, ‘한나의 현실’ 간구하기 - 아들을 주소서 : 한나는 피로운 자신의 현실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천년 전 사라 이야기와 500년 전 제사장 나라 나실인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을 간구한다.

•4단계 - 응답 받기 - 사무엘이 태어남.

•5단계 -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삼상 2:1)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자라며 제사장 나라의 헌신자로서 사사 시대 350년의 어두운 고리를 끊었다.⁵⁵

이와 같은 성경적 기도 훈련을 통해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른, 올바른 기독교 영성, 묵상을 정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학습한다.

8단계 - 성경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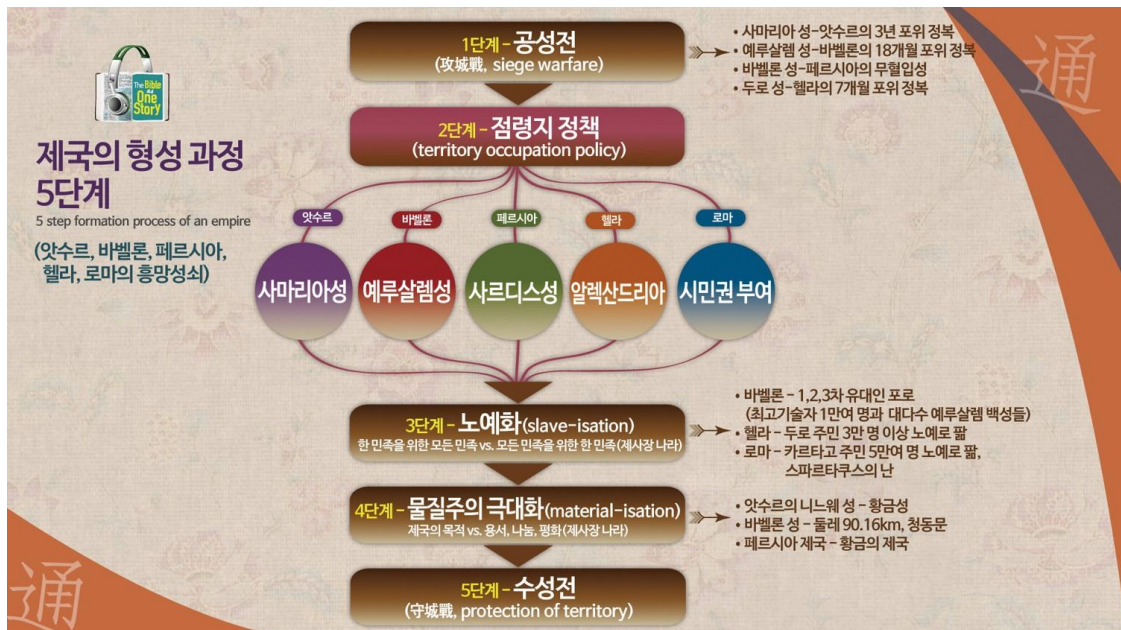
‘성경 전도’ 단계는 ‘성경 기도’ 훈련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과정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전도법에 대해 배우고 실행해서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전도하는 성경적 전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넉크리스천들도 모세의 홍해 이야기,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알고 있다.

⁵⁵ Ibid., 229-232.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모세의 출애굽, 홍해의 기적은 ‘민족과 나라 세우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윗의 이야기도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민족 통일’을 이뤄낸 이야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5대 제국 이야기가 풍성히 들어 있다. 년크리스천도 제국 이야기는 즐겨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성경과 연관하여 이야기함으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들어 있는 여러 제국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 전도’ 학습을 위해 먼저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를 정리하여 이 틀 안에서 5대 제국이 성경 안에서 어떤 경영 정책을 펼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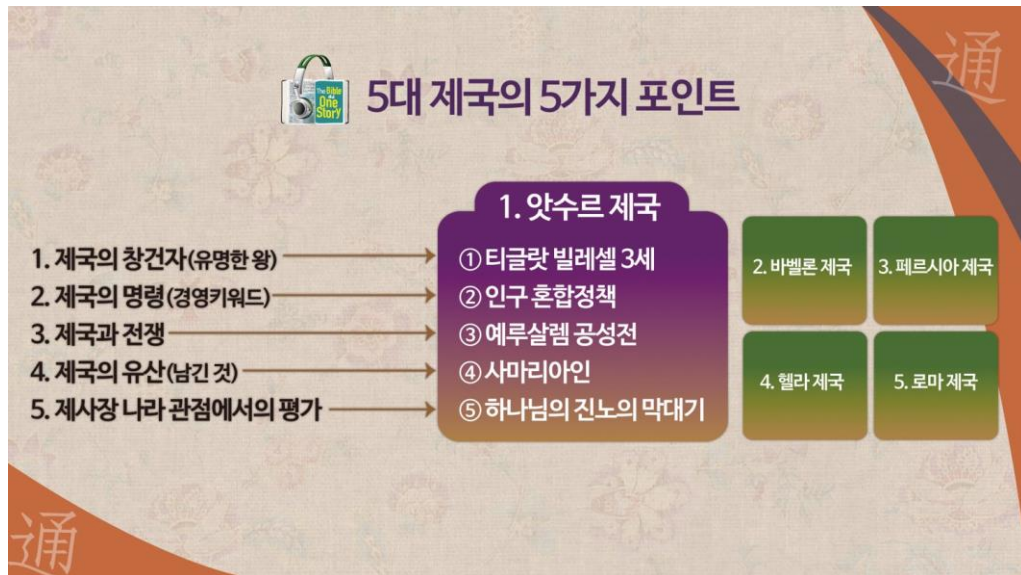
<그림-8>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



⁵⁶ Ibid., 341.

1단계 공성전, 2단계 점령지 정책, 3단계 노예화,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5단계 수성전이다. 5단계 틀에 따라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5대 제국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제국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볼 수 있도록 ‘제국의 경영 키워드’, ‘선지자의 메시지’, ‘제국이 남긴 것’,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의 제국 평가’의 틀을 만들어 제시했다.⁵⁷

<그림-9>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이러므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해 ‘모든 민족’을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병호는 ‘성경 전도’ 교육에 앞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

⁵⁷ Ibid., 338.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던 스테반처럼,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야기를 듣고 자란 디모데처럼,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성경 전도자’, ‘성경 스토리텔러’를 꿈꾼다고 말한다.⁵⁸


9단계 - 성경 통독

『통성경학교』 교재의 마지막 단계인 ‘성경 통독’은 말 그대로 성경을 잘 통독하기 위한 기초 정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얇은 책’, ‘통성경이란?’, ‘왜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가?’, ‘성경과 영성’, ‘성경과 찬양’, ‘성경과 성령 세례, 치유’, ‘성경과 영적예배’, ‘성경 왜 5세부터인가?’, ‘성경통독 1년 10독’ 주제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성경통독의 가장 우선은 역사순 읽기이므로 조병호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통독 순서를 정리해줌으로 공시와 통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⁹

⁵⁸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252.


⁵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429-430.

<그림-10> 역사순 성경통독 순서표

 **구약성경 역사순 성경통독 순서**

구약 성경통독 순서

모세오경	원역사와 족장 시대	창 1~11장 → 창 12~50장
	모세와 출애굽 시대 ①	출 → 레
	모세와 출애굽 시대 ②	민 → 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수 → 삿 → 룻
왕정 500년	왕정 시대 ① 통일 왕국 시대 1	삼상 → 삼하 → 왕상 1~2장
	왕정 시대 ② 통일 왕국 시대 2	왕상 3~11장 → 잠 → 아 → 전 → 욥 → 시
	왕정 시대 ③ 분열 왕국 시대	왕상 12~22장/왕하 1~14장 → 암 → 호 → 은 → 왕하 15~20장 → 사 → 미
	왕정 시대 ④ 남유다 퇴락기	왕하 21~23장 → 습 → 합 → 나 → 올 → 왕하 24~25장 → 렘 → 애 → 욥 → 대상 → 대하
페르시아 7권	바벨론 포로 시대	겔 → 단
	페르시아 시대	스 1~4장 → 학 → 속 → 스 5~6장 → 에 → 스 7~10장 → 느 → 말

 **신약성경 역사순 성경통독 순서**

신약 성경통독 순서

사복음서-예수님의 사역 ①	마
사복음서-예수님의 사역 ②	막
사복음서-예수님의 사역 ③	눅
사복음서-예수님의 사역 ④	요
사도행전 30년-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행 1~12장
사도행전 30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①	행 13장~18:22 → 살전 → 살후 → 갈 → 행 18:23~19장 → 고전 → 고후
사도행전 30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②	행 20:1~6절 → 롬 → 행 20:7~28장 → 엡 → 빌 → 골 → 몬 → 딤후 → 딤후
공동서신 9권과 요한계시록	히 → 약 → 벧전 → 벧후 → 유 → 요일 → 요이 → 요삼 → 계

구약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 장점에 대하여 조병호는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예로 설명하고, 신약성경은 ‘바울의 전도여행과 서신서’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각 시대에 따른 선지자들을 연결하는 것도 유익하다. 즉 왕정

시대 예언서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들과 선지자들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두면 성경을 역사순으로 통독하게 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조병호의 역사순 배열은 성경을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순서 즉 연대순으로만 배열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성경 7트랙에 따른 역사순 배열을 창안하여 배열한 것이다. 특히 구약에서는 <역대기상·하>를 ‘왕정 500년’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애가>와 <에스겔> 사이에 배열하였다.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부분에 특징이 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시간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4권의 책을 ‘4복음서’ 트랙으로 하여 기존의 순서로 배열한다. 예수님의 행적을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저자가 각각의 시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각 권별로 읽어 풍요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조병호는 곳곳에 연대순에 의한 배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도록 고안한 특별한 역사순 배열을 통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성경 통독’ 단계에서 학습의 강점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는 ‘신앙 언어’ 들을 누군가에게 ‘설명’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것이다. 성경, 영성, 찬양, 성령, 세례, 치유, 영적 예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등,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듣고 사용한 용어이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통성경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학적 용어들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조병호는 ‘통 프레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데 큰 강점이 있다.

10단계 - 자격고사 및 과제

렉처러 코스의 또 하나의 강점은 과제와 자격고사에 있다. 강의를 듣고 흘러버릴 수 있는 부분을 과제와 자격고사를 통해 스스로 통성경을 정리하도록 하고, 외워서 쓰게 함으로 이후에 교회에서 성경통독을 운영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표는 렉처러 코스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과제이다. 어떤 주제의 과제이고 어떤 훈련의 목적을 두고 부여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과제의 주제는 조병호의 강의와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렉처러 코스 초기에는 10~12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과제가 부여되었으며, 이후 2박 3일씩 2주에 걸쳐 진행된 인텐시브 기간에는 주말 과제만 제시되었다.

<표-7> 렉처러 코스(10~12주 과정) 과제 예시

과정	주제	훈련목표
1주	~cal(category)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정리하기 통독성경 1일에 10일치씩 읽기 - 70일 분량을 읽기	‘통’ 인식론 훈련 성경 숲보기 훈련
2주	교재 <성경통독> 3일에 한 번 읽기	성경 전체 스토리하기

	통독성경 1일에 30일치씩 읽기	훈련
3주	교재 <성경통독> 두 번 읽기 공시(共時)에 해당하는 인물을 10개 카테고리를 만들어 15명씩 찾아 정리하기	역사순 정리 훈련
4주	교재 <성경통독> 각 마당마다 A4 1/2씩 요약하기	스토리 압축하기 훈련
5주	교재 <쉬운성경통독> 과별 10문장으로 요약하기	스토리 압축하기 훈련
6주	교재 <쉬운성경통독> 과별 10문장으로 요약하기	스토리 압축하기 훈련
7주	교재 <쉬운성경통독> 과별 10문장으로 요약하기	스토리 압축하기 훈련
8주	교재 <성경통독과 통신학> 내용 중 Let' s통 구약 1-2번 내용을 A4 1장으로 정리하기	통성경 훈련-워크숍 발표
9주	교재 <성경통독과 통신학> 내용 중 Let' s통 신약 1-2번 내용을 A4 1장으로 정리하기	통성경 훈련-워크숍 발표
10주	주전 8세기 내용 A4 1장으로 정리하기	성경과 제국 훈련

<표-8> 렉처러 코스(인텐시브 과정) 과제 예시

주제	훈련목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트랙 질문&답 외우기	성경 전체 분위기 파악 훈련
'통성경 노래' 외우기	하나님 마음 20마당 외우기 훈련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40개 제목 외우기	성경줄기-역사순 외우기 훈련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 52개 제목 외우기	제목으로 성경 전체 스토리 이어가기 훈련
교재 <통성경학교> 52개 제목 외우기	통성경 스토리하기 훈련
교재 <통성경학교 워크북> 빈칸 채우기	성경통독반 운영의 실제 훈련

렉처러 코스 ‘자격고사’는 모든 강의를 마치고 그동안 과제로 실행했던 부분들을 외워서 작성하는 일종의 시험이다. 렉처러 코스 초창기에는 5개 주제를 제시하고 3개를 선택하여 서술하도록 했다.

1. <성경통독>의 20마당 내용 중 1마당을 택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2. Why Biblical?에 대해서 쓰시오.
3. <성경통독> 제목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시오.
4. 성경을 ‘통’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성경이 66권인 동시에 1권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형식을 진행하다가,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과 통성경학교 과정으로 수업한 이후부터는 각 교재의 52과 제목, 총 104개의 제목을 모두 외워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104개 제목은 성경을 역사순으로 나열하여 큰 주제를 함축한 표현들로, 교재와 강의를 마스터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렉처러 코스 자격고사를 통과한 참여자들에게는 앞으로 통성경 렉처러로서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한 서약서를 받은 후 렉처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렉처러 코스를 이수한 목회자들은 그동안의 렉처러 코스 교육을 통해 설교 때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목회 현장에서 ‘통성경학교’를 열어 성경 교육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 각각의 목회 현장에 맞게 전교인을 대상으로 여는 통성경학교, 교사와 리더들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통성경학교, 패밀리 스쿨을 위한 부모 통성경학교, 시니어를 위한 통성경학교 등을

비롯하여, 통성경 7트랙과 함께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 성경통독반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은 각 선교지에서 통성경학교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렉처러 코스 이수자들이 연대하여 지역별로 통성경학교를 연합으로 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통성경학교를 운영하여 동료 목회자들에게 배운 지식을 전하며 도전을 주기도 한다.

렉처러 코스 포스트 과정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배움과 연구를 지속하고, 통성경목회자연구회, 지역 렉처러 이수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통성경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IV. 렉처러 코스 목회자 인터뷰와 평가

렉처러 코스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배경사를 비롯하여 전체 스토리를 다시 공부하고자 신청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신청한 사람도 있으며, 통박사 조병호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성경통독을 공부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도 있다. 렉처러 코스는 다른 목회자 세미나와 달리 ‘자격증’을 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나 목회 방향에 있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렉처러 코스에 참여한 10명의 목회자들을 통해 목회자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와 목회 성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 방식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미국 드루대학교 디민 논문으로 사용함을 공지하였다. 목회자들에게 요청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렉처러 코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렉처러 코스의 특징 또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렉처러 코스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렉처러 코스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의 목회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5. 렉처러 코스를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시겠습니까?
6. 렉처러 코스 참여 후 목회자의 어떤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었습니까?
7. 렉처러 코스는 여타 성경공부와 어떤 변별성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원 동기는 주로 목회자로서 성경 전체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더 깊이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갈급함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둘째, 렉처러 코스의 강점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 66권 전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즉 한 권의 책(One Story)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대답이 많았고, 통성경 포물라, 통성경 프레임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셋째, 교육 과정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부분과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 하나님 마음 등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는 것에 많은 동의를 얻었다. 넷째, 렉처러 코스 참여 이전과 이후의 목회 차이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덜었다는 것과 성도들에게 성경 스토리를 충분히 담아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예화나 구절 중심, 그리고 신학 지식 중심의 설교에서 성경의 내용 그대로 잘 전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는 대답이 많았다. 또한 성경통독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의 말씀 사역이 아닌 성도들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데에 큰 강점을 두었다. 다섯 번째는 렉처러 코스를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전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설교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과정이며, 특히 담임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최고의 교육 과정이라며 추천의 이유를 들었다. 여섯째, 렉처러 코스를 통해 교회에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세대’, 즉 주일학교 교육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통성경으로 평신도 성경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교육 체계가 세워졌다고 대답하였다. 무엇보다 렉처러 코스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는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5살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는 ‘패밀리 스쿨’ 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 교육에 활성화가 되었으며, 렉처러 코스에서 다루었던 교육 과정을 모든 예배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곱째, 렉처러 코스 교육 내용이 기타 성경공부와 어떤 변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읽기의 스킬, 설교를 위한 스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정리된 통성경 과정이며, 성경의 역사적 줄기 정리가 탁월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프레임과 개념 정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꼽았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훈련 시키는 방법론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에 그 차이를 답하였다.

통성경 교육의 기초로 조병호는 시간, 공간, 인간 / 개인, 가정, 나라 /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을 스토리의 기본으로 가르친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결국 목회의 본질인 ‘성경’ 기록 그 자체를 잘 안내하는 안내자, 목회자, 교육자로서 자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도들과 성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일꾼 일꾼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자와 성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섬김에 앞장서는 곳이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아닌,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 선택 받은 평신도 지도자 스테반의 성경 실력은 놀랍기 그지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로 스테반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이야기까지 성경 속 2,000년의 이야기를 ‘틀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공중 앞에서 10분 만에 정확하게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 이처럼 평신도 지도자는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로 전하는 ‘스토리 텔러(이야기꾼)’가 되어야 한다. 즉 평신도 지도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설교가 아닌, 성경을 이야기로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다.

반면 목회자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월등해야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는 끝이 없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성경 렉처리 코스가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재연구, 재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한 방법으로 통성경 렉처리 코스는 성경을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⁶⁰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반드시 성경 본문을 다 읽도록 강조한다. 결국 목회자들의 가장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설교를 단지 흥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예화가 본론이 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 시작되었기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로서는 서양의 분석적인 성경 공부 방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신학자인 조병호가 세계 신학계에 내놓은 통성경은 서양과 동양의 학습법을 서로 접목해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전체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린다.’라고 주장하며 성경이 원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책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책으로 자리매김을 해준다.

⁶⁰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320.

참고 문헌

국내서적

- 조병호 편찬, 『큰글자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렛츠 통, 21세기는 통이다』 (서울: 통독원, 2006).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 통으로 숲 이야기』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개정판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개정증보판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논문

- 민경민,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탐라교회를 중심으로,” (드루대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 2018).
- 진성봉, “초막절과 성경통독 연구,” (드루대학교, 목회박사학위논문, 2021).

간행물

- 김은주,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II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5, (2018.9.30): 89-130.

- 김현숙, “신학교육과 대화적 패러다임,” 「기독교교육정보」, (2001.4): 268-293.
- 노영상, “신학과 신학교육의 현장성과 실천성 제고,” 「기독교사상」, (2014.5): 24-30.
- 조병호, “살아 숨 쉬는 성경 지식과 현실의 통찰력, 성경통독으로
키웁니다,” 「목회와신학」, (2012.3): 48-52.
- 조병호,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2012.3): 132-137.
- 조병호, “성경통독의 학문화, 대중화, 세계화를 선도하다,” 「CHRISTIAN
LEADER」, (2011.9): 6-15.
- 조병호, “성경의 중심을 밝혀주는 통독(通讀)의 힘,” 「ECONOMY VIEW」,
(2014.9): 36-41.
- 한춘기, “한국교회의 성장방안 모색 - 교회교육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26, (2011.1.30): 129-151.

미출간 세미나 자료집

- 경남목회연구소, 「성경을 보는 새로운 방법, 통통」 2007.11.19~21.
- 성경통독원, 「제3회 목회자 통통세미나」 2007.6.25~27.
- 성경통독원,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2008.6.2.
- 성경통독원,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2007.5.22.
- 조병호, “한기총과 세계 교회: 성경적 기독교 매니페스토 - 1910년
에딘버러세계선교대회부터 2008년 한국 신학자 서울선언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획단 포럼」 2010.11.18.

신문

교회연합신문, “통독은 성경이해의 완전한 방법,” 2007.6.3.

국민일보, “기독인 43% 성경 통독 경험 없다,” 2008.02.13.

기독신문, “성경의 핵심가치와 통하라,” 2007.7.4.

목회자신문, “목회자 통독세미나 주목 받는다,” 2005.1.15.

한국기독교공보, “‘성경통독’ 목회자 세미나,” 2005.1.15.

부 록

1.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언론보도

20 2007년 3월 18일 제1874호 기독교신문 신학·교육

동·서의 교회 만나 기독교 미래 제시

한시미션, 레너드 스윗박사 초청 컨퍼런스



레너드스윗박사

월간지 '처치리포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50명' 가운데 올해 8위에 오른 미국 드류대 성좌교수 레너드 스윗 박사가 주 강사로 나선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그는 올해 16위에 오른 새들백교회 리 워렌목사는 물론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 빌 하이벨스목사 등에게 미래교회를 위한 목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구사회의 교회는 이미 위기에 직면했다. 교인들의 감소는 증가하고,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갔다. 교회가 다른 시설물로 전환되고 있다. '신데이커리스턴'도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한국교회도 점차 유럽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다.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 인구통계조사에 의한 기독교인의 교인 수 감소 발표였다. 한국 교회는 긴장했다.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이 지점에서 동서의 교회가 만나 미래의 교회를 열어가자는 컨퍼런스가 오는 5월22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다. 미국의

'레너드 스윗박사 초청,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컨퍼런스의 주제는 '21세기는 통(通)이다. 맷츠 톱(Let's Tong)'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한 한시미션 대표 조병호박사는 "다가올 5월 컨퍼런스에서 레너드 스윗박사와 더불어 미래 교회를 주도할 젊은 목회자들 1만여명과 함께 이러한 비전을 나누고,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동서양이 협력하여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성경의 기반 위에서 지렛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며,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여 시대를 이끌어야 할 미래 교회의 주인공됨을 자각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시미션의 관계자는 "컨퍼런스 주 강사로 나선 스윗박사는 포스트모던 문화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21세기 세상을 더욱

력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특별히 서구를 대표하는 기독교 미래학자로서 서구 교회가 동양의 기독교와 더불어 동행해야 하는 필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의 시작을 한국교회로 여기고 있다"며 "젊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서구에서 선도한 기독교 문화의 틀을 넘어 동양의 기독교 생명력을 발견한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시미션 관계자에 의하면 스윗박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동서양이 함께 동반자의



한시미션이 동서의 교회가 만나 기독교의 미래를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오는 5월 22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컨퍼런스 준비위원장인 조병호박사는 서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스윗박사의 '포스트모던 시대 복음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에 적극 동의하면서, 동시에 동양을 대표하는 한국의

과 조화를 상징하는 '통(通)'의 관점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동양과 서양이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이 21세기 초두에 꼭 필요한 생각임을 강조했다. 조박사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5월 22일, 21세기 변화 주도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제시 서구중심에서 동서양이 함께 성경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동시에 복음 확산이 더욱 용이한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대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그의 주장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향

위치에 서야 할 필연적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방향에 관해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한국 교회의 미래 목회자들과 함께 그 통찰력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내놓을 수 있는 21세기 기독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박사는 "지금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며, "동양 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그동안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세기 동안 계약 중심의 서구 문화와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의 특징을 집목하여 발전시켜왔는데, 이것은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힘"이라고 전했다. 조박사는 또 이러한 한국 교회의 힘을, 균형

이런 컨퍼런스는 120년의 기독교 역사 내내 미국 교회로 대변되는 서구 교회의 중심적인 관점 즉 '계약적'인 관점에서 부분으로 보면 성경을 '관계적' 관점의 기반 위에 전체 숲을 아우르는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교회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미션은 오는 22일 한시문화공간 다해원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한다. /김대원기자

■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조병호 박사 편집국장 대담

성경, 동·서양 소통케 하는 힘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기독교는 지형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 영향력이 반역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급속한 인종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오랜 기독교 세력의 유럽과 북미는 정체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달 22일 서울 중남부역

관에서 레너드 스튜어트 박사와 함께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컨퍼런스는 준비위원장인 조병호 박사는 본지 편집국장 안을철목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집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편집자주>



일시 : 2007년 4월 12일 장소 : 예술의전당·다해연 정리 : 정보미기자 사진 : 임성국기자

인물들 국장(이명박) : 광안 대부흥 1백주년 기념하는 올해,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간직하는 복소리가 놓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 중인 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지요.

조병호 박사(이명박) :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입니다. 준비하는 데 내달 22일 중남부역에서 2일간, 가장 근접한 장소인 서울 중남부역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미래를 위한 모임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과 함께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번 행사는 김세기 주교, 특히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살펴보는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안 : 동·서양은 어떤 행사가 동양과 서양이 함께 가는 것을 선언하는 집회이며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진단하게 살펴보는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장분과 현상분 두 가지로 나누어 한국 교회를 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조 : 일각에서 교회 성장 둔화현상을 두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 가능성까지 근원적으로 탐침하면 된다고 하시는 데 따릅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양적 증가가 멈췄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종속적 인위적이고 낡은 것들 기독교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장분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기독교의 성장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물을 끓이면 증기를 보지만 사시 때라든가 아무런 시기가 300년이 넘어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상이 어떻게 창조를 창조하시는지 새로운 세대의 대가 열렸습니다.

안 : 때로는 성령의 증거가 있고 있는 이가 능성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성장 동력은 언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금을 지원한 위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한국 교회의 한국 시대를, 나아가 세계 교회를 향해 새로운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 : 한국 교회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지난 1백20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제 시했던 문화 비전들의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조 : 지난 1백20년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던 당시, 한국 기독교는 열종교의 계급사회를 타파하는 반봉건 정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하는 민초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인도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한국 전쟁 시에는 위로와 치유를 우리 민

족을 돌렸고, 6.25 전쟁 시에는 민족복합운 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종 존중의 꿈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는 비록 소수로 출발했지만 지난 20세기 1백년 동안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즉,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자 '사회적 어젠다(Agenda) 형성의 산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세대는 구세대와 새세대와 중년의 개혁기대를 통해 이제 대담이 무너지면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새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책임질 20, 30, 40대 목회자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 :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넓게 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데요.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사회와 한국이 속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한국교회,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초점 대상인 미래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동서동행'과 '봉'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시겠습니까.

조 : 우선 21세기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그동안 세계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오던 미국과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려 하고 있는 정세로 부각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동북아 경제 패권국 안에서 탈락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례 중국은 급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드위치'란 도 아같은 위기 의식의 필요성이요, 동시에 침체 위기에 빠진 서구 교회의 급상장고 있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패권국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동양의 문화적 관계,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관계,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를 향해 내어놓아야 할 새로운 꿈입니다. 즉,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21세기의 헤게모니 삼바 세력을 말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독교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한국 교회는 우리 내부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소통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바야흐로 나누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안 :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와 중국 교회 사이에 놓여 있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비전은 중요도 높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기대가 되는 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조 :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한국 교회가 세계 경쟁의 중심과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21세기의 영감으로 영감을 주는 힘이 될 수 있는 동시대를 소통케 하는 힘이 세계 경쟁의 원동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세기 로마가 지중해 중심의 세계경쟁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에도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이차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왔습니다. 빌레르 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과 주인의 리더인 영혼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일평생을 존엄한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믿고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향해 오고 있는 지금도 빌레르를 이룰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빌레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주권쟁취를 위하여 진정된 사랑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기반이며 동양의 관계 정신을 볼 수 있는 동시대를 소통케 하는 힘이 하나님에 영감을 주신 자기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생강은 1세기뿐 아니라 21세기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있으며 유효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세계가 빌레르로서 증명한 것들을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믿고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향해 오고 있는 지금도 빌레르를 이룰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빌레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주권쟁취를 위하여 진정된 사랑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기반이며 동양의 관계 정신을 볼 수 있는 동시대를 소통케 하는 힘이 하나님에 영감을 주신 자기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생강은 1세기뿐 아니라 21세기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있으며 유효합니다.

안 : 한국 교회가 성경의 생강을 세계 경쟁의 핵심적인 가치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국

20여년 만에 관계 중심의 동양의 문화 위에서 일낼 수 있는 성경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명확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의 방법론을 미국 교회와 중국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미국의 21세기 크리스천과 중국의 21세기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의 생강으로 세계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힘이 한국 교회의 생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봉'이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의 방법론이자 생강의 메타로써의 필요성을 낳아서 전 세계인의 삶과 인식론으로서, 또한 사회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그 가치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문화적 전통을 구도하는 생강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 붙어있는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생강으로 경쟁하여 하나님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와 중국 교회, 나아가 세계 교회의 생강으로 나아가기 하는데 그 생강을 한국 교회의 '봉'이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의 방법론을 이해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안 : 성경 읽기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컨퍼런스 키워드 '通'... 21세기, 성경의 생각으로 경영돼야 우리 내부의 성장 동력 충분, 한국교회 미래 꿈꾸는 자리될 것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준비위원장 조병호 박사(왼쪽)와 편집국장 대담 안을철 목사(오른쪽).

교회를 끌어 쓰시라라는 소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교회나 중국 교회도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한국 교회가 성경의 생강을 기반으로 동서양 문화적 관계를 신도들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 : 그것은 바로 성경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 방법론 때문입니다. 레너드 스튜어트 박사가 주교의(Missional)이고, 좀 더 관계적(Relational)이며, 좀 더 성구신적(Incarnational)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두 번째는 즉, 좀 더 관계적이야 한다는 것은 사구의 계약 중심에 대한 원리와 함께 한국 교회의 의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적인 움직임으로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스튜어트 박사는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백20년간 계약(Covenant) 중심의 종적 사회 형태로 발전한 사구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관계(Relation) 중심의 종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왕세자 장사와 6살을 뛰어서 보면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에 보이고, 6살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항상 성경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노아의 심판 때 제일 중요한 단적인 예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 결국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경쟁에 따라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군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Love's Tongue'라는 생강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조 : 바로 '성경통독'입니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부분이나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와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통독은 한국이 계약 중심의 사구 노아 신학을 받아들인 지 1백

세기 교회와 중국 교회를 소통케 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 : 이번 컨퍼런스는 그 자체로서 드넓은 복음과 사랑의 동행으로 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레너드 스튜어트 박사는 책 '동양과 서양이 동행으로 21세기 미래를 꿈꾸어 가는 길'을 통해 다뤄 드려내고 강조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 역사는 드러난 조지아나 지금 같은 문화적 이념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행하여 함께 가는 비전을 품고 세계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 민족의 세계 영감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마음과 몸으로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 감사합니다.

편집 이수진 / 교필 신동환

국민일보 **미션**

2007년 5월 23일 수요일 (제5664호) 29

레너드 스위트 교수 ‘동서동행 미래교회 콘퍼런스’

“형식·교리 아닌 예수님과 통하자”

(通)

서양교회 본질왜곡 비판
“성경 흐름으로 이해” 역설
참석 7000여명 열띤 호응

“세상을 바꾸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기독교라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재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디스크 조각모임’을 거쳐 ‘재부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미국 드루대 석좌교수는 22일 서울 잠실체육관에 모인 미래 사역자 7000여명 앞에서 세계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것은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를 첨가시키려다가 오히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길, 즉 형식과 원리 교리가 아닌 예수님을 가깝없이 전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스위트 교수는 “한국 교회는 예배 형식과 성전의 크기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들의 요구와 선호를 만족시키려 했던 서구의 길을 절대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교리와 원리의 강조, 체인 영입식 교회 재생산 등을 추구하는 ‘유인적, 명제적, 식민주의적 교회’와의 결별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대신 교회가 직접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관계중심적, 성육신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트 교수는 “교회라는 화분을 전하려 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22일 열린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콘퍼런스'에서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열중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사역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날 성경은 전화번호보다 접하기 쉽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그동안 서구 기독교는 계약 중심, 동양은 관계 중심으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성경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읽는다면 참된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위트 교수는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한 교훈을 위해 존재하고 교훈을 간단한 요점으로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진정 말하려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며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는 데 익숙한 서구 방식이 아닌 동양의 통독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각 구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읽어나간다는 의미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야기가 보이고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트 교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과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던시대에 혼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갖고 사는 삶”이라며 “통으로서의 성경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일점일획이라도 변화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합태경 기자 zhuanjia@kmb.co.kr

주제 걸맞게 클래식·판소리 어우러진 한마당 행사 이모저모

22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콘퍼런스'는 '동서동행'의 주제에 걸맞게 동서양 음악의 협연이 행사 전체를 이끌어 눈길을 끌었다.

○...국악기와 양악기가 조화되고 클래식 판소리 CCM이 어우러진 '술과나무 퓨전오케스트라'는 대회선언, 동서 퍼포먼스, 비전 선포 등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퓨전 음악을 선보여 동서가 특정 영역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위트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레츠 통(Let's tong)의 상징이 곧

술과나무 퓨전오케스트라”라며 “오늘 이 오케스트라를 ‘통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 싶다. 동서양 음악이 이렇게 만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평가했다.

○...과거와 현대의 이미지를 조화시킨 콘퍼런스 무대도 관심을 끌었다. 무대 뒤편은 옛 한글체로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세로로 써내려간 휘장으로 꾸며졌고 그 앞은 초현대적 기술로 만들어진 투명예정의 대형화면이 세워졌다. 콘퍼런스에는 전국 각지의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젊은 목회자 7000여명이 교단 교파를 떠나 참석해 미

래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원은 “1만여명의 참석을 예상했지만 신학생들이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서 오전 비행기로 올라온 포항동광교회 김영석 목사는 “신문 기사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콘퍼런스를 접하고 동서양의 교회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개척 교회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참석했다”며 “성경만이 동서양을 소통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듣고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b.co.kr

21세기 교회비전, '통(通)' 하면 보인다

레너드 스윗 초청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교회는 새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20세기 한국교회의 꿈을 21세기로 이어가길 원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책임질 20, 30, 40대 목회자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동·서양이 만나 다양한 색을 낸 지 150년.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과 상상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레너드 스윗 (Leonard Sweet, 60세)이 지난 22일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가 ‘포스트모던에서 EPIC양상으로’, ‘APC교회에서 MRI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Let’s Tong’을 주제로 미래교회의 변화에 주목하기 위해 모인 미래목회자 1만 명이 잠실체육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시미션(대표 조병호 목사)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레너드 스윗은 “21세기 교회는 서둘러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재부팅’을 해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표류하는 교회가 EPIC 모델을 통해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EPIC, 표류하는 교회를 위한 대책

우선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EPIC이란 △경험성(Experience) △참여성(Participatory) △이미지중심성(Image-rich) △연결성(Connected)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새로운 경험경제 사회에서 교회가 치료자의 역할, 이야기꾼이 넘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평화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콘텐츠 제공



▲ 지난 22일 열린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레너드 스윗이 21C교회 비전을 강연하고 있다.

자의 역할 감당을 통해 이성에서 경험으로의 전환 △대화적인 설교, 친교의 성례전, 인터넷 교회와 같이 대표성에서 참여성으로의 전환 △사회 속에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해 문자기반에서 이미지 중심으로의 전환 △성경이 말하는 ‘관계’와 ‘연결성’으로 들어가 개인주의로부터 개인적인 공동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열망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경험(E), 참여(A), 의미로 고통치는 이미지(I), 그리고 연결(C)이라는 네 가지 필수요소 위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PC교회에서 MRI 교회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받은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가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 머물게 하는 유인적(Actional)교회 △자신의 입장이 정설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확산시키는 명제적(Propositional)교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모형으로 복제물을 재생산하는 강압적(Colonial)교회였던 것에 비해, 21세기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지향적(Mission)교회 △관계형성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관계지향적(Relational)교회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복된 소식이 되는 삶을 사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교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레너드 스윗은 “APC, MRI 두 유형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닌 각각의 시대에 유효했던 방식”이라고 부연한 뒤 “MRI교회의 특징이 서양보다 동양의 특양속에 잘 보존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양의 과제는 내재된 MRI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경읽기 방법의 부활, 통(通)

또한 레너드 스윗은 성경 통독에 있어 “모던 시대가 물려준 분석과 해석의 방법이 성경을 참되게 알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성경을 통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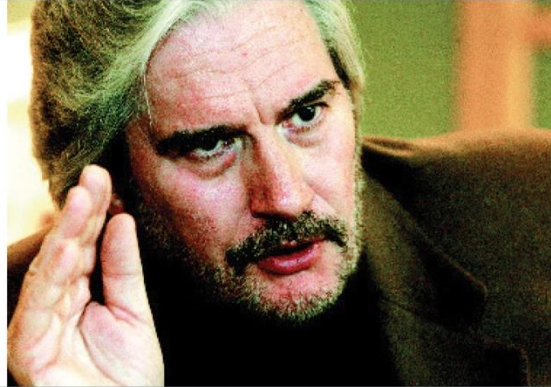
“계약을 중시하는 서양적 풍토에서 성경을 읽을 때, 관계 중심문화에서는 읽기 어려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풍토에서 성경을 읽을 때 계약 중심적 문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면서 “성경읽기에 있어 ‘통’은 동양의 가장 좋은 길과 서양의 가장 좋은 길이 모이져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성경을 통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통으로서의 성경진리는 일정일회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감신대 김영래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쇼과 퓨전 오케스트라’의 함께하는 찬양, 21세기 비전 메시지 선포식 등의 다양한 순서도 함께 진행됐다.

신동명 전문위원 trueyours@naver.com

예수는 '나를 따르라' 했지 '가르침 따르라' 한 적 없는데... 교리 집착하며 말씀과 멀어져



레너드 스윗 박사
=교회를 성공한 인사하다. 미국 뉴저지주 드루 신학교의 부총장을 지냈다. 『소울 트러니』 『아무아 저서』 『소울 살기』 등 30여 권을 썼다. 특히 『소울 초나』는 미국에서 50만 부가 팔렸다. 100개가 넘는 논문, 60여 개의 선교문도 출판했다. 『미국에서 레너드 스윗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상상할 수 없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세계적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인터뷰

미국 '영향력 큰 크리스천 리더' 8위에

미국에선 매년 1천 개장 영행이론 크리스트 리더 50년(이치 리포트 조사)을 발표한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60·드루 신학교 석좌교수) 박사는 올해 8월에 출간했다. 10월 11일에서 신학자는 그가 유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1월, 한국에서도 유명한 릭 워렌 목사가 16위였다. 1위는 베스트셀러 『금경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차지했다.

성경을 쪼개지 않고 읽는 '동(動) 방법론'을 주장하는 조벌호 박사의 초창기로 지난주 발행한 스윗 박사의 초창기로 지난주 발행한 스윗 박사의 초창기로 지난주 발행한 스윗 박사의 초창기로...

신은 기독교 미래학자로 불린다. '미래'를 말하기 전에 '현재'를 말한다. "나는 종종 교회의 스타벅스를 비교한다. 『스타벅스에 따른 가세(Gospel according to Starbucks)』이란 책까지 있다. 스타벅스는 단순의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 커피에 대한 '경험'을 파는 곳이다. 자체의 브로, 스타벅스에는 참여가 있다. 소비자도 원하는 걸 골라서 원하는 브랜드를 한다. '내 커피'를 고르는 것이다. 소비자도 수동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지금껏 교회는 너무 지도자 중심적이고, 신도들은 너무 수동적이었다.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평신도와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 이제 교회가 '우리의 믿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왜냐하면'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미래란 성경에 나타난 교회 본래의 모습(Original Operating System)을 말한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갈수록 종교에 흥미를 잃고 있다. "그렇지 않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다. 교회를 떠나고 떠나 버려야 하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교회의 자체가 문제이다, 예수님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내게 물어볼 만한 이들이 있다. 그 이들이 읽고 다니는 티셔츠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주여, 제발 당신을 따르십시오. 일부 사람들은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Please, Jesus save me from some of your followers)' 그게 젊은이들의 정서다." "그럼 어디에서 감정이 일어났나. "예수님은 '영나님의 왕국-하나라의 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랐다. 그런데 교

회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 혹은 나의 꿈'으로 바꾸어 버렸다. 성지를 빼앗고서 술한 클럽을 즐겼던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영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Follow my teaching)'고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따르라(Follow me)'고 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 자체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원리, 원칙, 주장을 교리에 집착하면서부터 예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나.

교회도 스타벅스를 닮아야 소비자가 직접 커피 블렌딩하듯 평신도와 세상에 주도권을

"있다. 하나님께선 인간에게 동-사망적인 마인드를 함께 주셨다. 그러나 세상엔 예수님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분해하고, 왜곡했다. 늘 어원론적인 방법에만 의존했다. 신과 영, 믿음과 사랑, 놀음과 나눔으로 나누었다. 이런 사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계가 경계하다. 동양적인 마인드가 열쇠이다." "동양적인 마인드는 뭔가. "동양적인 마인드는 원형적이다. 시작과 끝이 없다. 예수님은 늘 동-사망적 마인드를 함께 던졌다. 나는 가장 큰 자유, 또 가장 작은 자유" 나는 권위를 주지 않고 동시에 힘을 주러 왔다. '행위'를 지체하고, 비동기처럼 순박하라'고 했다. 예수님 말씀은 철저히 변(변)이원론적이다. 그 변이원론적인 정서와 토양이 바로 동양에 있다." "사극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해를 못 했다. 요즘에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설교할 것에서 '마침'을 받을 것이다." 스윗 박사는 '세'를 예로 들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교실에서 세를 배웠다. 날아가는 세를 따라가고, 우리는 세를 들고, 자연의 사치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를 배웠다. 그런데 실용주의 생물학자가 보는 세는 다르다. 죽은 세를 움직이고 생물학적 지식을 동물원에 해부한다. 과연 동물 중 누가 '세'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이 있는 세보다 살아있는 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진정성' 얘기도 덧붙였다. "진정성에는 음악과 양극이 있다. 음악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긴다. 팔자면 어떤 팔도 못 낸다. 양과 양. 어떤 식의 사극은 사극인 사극이다. 사극에선 활과 거짓 등 늘 상반된 사극이 있었고, 둘 중 하나를 가려내야 했다."

"그렇지 않다. 기독교 역사는 오랫동안 사극이 주도했다. 그리고 동양도 사극 교회를 받아들였다. 동양의 교회도 사극 교회를 믿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다. 동양도 동양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란 말을 자주 한다. 그럼 '믿는다'의 의미는 뭔가. "믿음'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피스트(pistia)'다. '신뢰'란 뜻이다. 그런 황제와 '관계'란 의미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믿음을 하는 신앙의 원리로 바꾸어 버렸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만 믿으면서 '믿는 사람(신자)'이라고 말한다. 지적(知的)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다. 두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긴밀한 관계를 믿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아다(yada)'란 말이 있다. 부부 가장 친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잘 때 쓰는 말이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럴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나. "물론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 통해서 살고 계시다. '내가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고 말하는 건 오만한 얘기다. 내가 어떤 자기 전에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내가 누군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미 살고 계시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단계를 어디서 시작하나. "신앙과 믿음 따위는 아무도 이해하게 하나님께 붙었다."

신-아, 명암 나누지 않은 예수 말씀을 나누고 쪼개고 분석 이원론적 사극 방식에 한계

"아다에 있다나, 아담과 이브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했다.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그게 첫 번째 단절이다. 또 두 번째 단절의 단절. 그게 두 번째 단절이다. '천국은 왜 버렸나' '인간이 사육신이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 그게 세 번째 단절이다.' '이와, 왜 없었나' '내가 사육신이다.' '이와, 내가 버려진 단절이다. 인간과 창조물과의 단절. 즉 자연계의 단절이다. 이 4가지 단절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오신 것이다." "말씀은 종교의 양자택일이나 현대 불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마디가 된다. 바로 '관계론(Relationship)'.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한다. '관계론은 존재론이다.' 글=최승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vangoph@joongang.co.kr

2.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 성경을 통통한 재정향」 언론 보도

경향신문

기획

2008년 6월 14일 토요일 | 23

“한국교회 과오 편향된 성경읽기에서 비롯”



김석중 선임기자의 믿음의 새길을 찾는다

‘성경통독’ 운동 펼치는 ‘한시(限時)미션’ 조병호 대표

지난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기독교 신학자 140명이 모여 ‘성경을 통한 재정향(再定向-Reorientation)’을 주제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엔 김자연 칼빈대 총장, 김경익 강변교회 원로목사, 김인환 홍신대 총장, 박종학 경동교회 담임목사, 은준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 총장 등 진보와 보수를 광범위 망라한 비종교계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보·보수 진영이 서로 편향된 성경읽기를 해왔다”면서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교회의 사유화, 기독교의 신학, 교회의 분열 등은 성경의 참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약과 구약을 부른이 아닌 전제로 보고 교과·교단을 뛰어넘어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성경읽기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선언은 ‘한시미션’ 대표 조병호 박사(48·사신)와 김신대 교수 박종현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 박사는 20여년 동안 올바른 성경읽기 운동을 벌여온 ‘성경통독 전문기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왔습니다. 기독교 보수 진영의 목회자들은 복음 전파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시드웰전과 서신서 등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진보진영은 민주화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임장에서 이모스서 등 구약의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편향적으로 인용해서 빚어진 과오를 극복하는 길이 올바른 성경읽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의 반목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조 박사는 1987년 장신대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경남 신학 지리산 지역에서 성경읽기 캠프를 시작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영국의 에든버러와 버밍엄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88년 한시미션을 설립하고 ‘성경통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이킴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조 박사는 무교회 지역 전도자, 국제성경통독원 원장, 월드 ‘통독큐티’ 발행인을 겸하고 있다.

그는 한시(限時) 미션은 기독교인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더



욱 집중해보자는 결심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하이킴교회는 건물 옆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 강당을 빌려 주일 예배를 본다. 하이킴은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출인 단어다.

조 박사는 “공동체적인 성경통독과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루어 주는 통독방식의 설교가 한국 교회의 명칭과 사회성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모든 신학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성경통독은 ‘한국적 성경읽기’를 뜻한다.

‘성경 통독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그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통(通)으로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홍수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해온 서구 교회의 시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빗물에서 홍수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눈물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조 박사는 ‘도발적 상상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그동안 한국 교회와 신학이 서구 신학을 수신(受信)만 해왔다면 이제는 발신(發信)할 때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놀랍게도 동양적인 요소인 ‘관계’ 중심의 정통과 서양적인 ‘계약’의 정신을 조화롭게 소화시키고 있는 민족입니다. 계약과 관계 중심으로 각자 성경을 읽었던 의미를 종합하는 것이 제게 말하는 통(通)입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서 성경 통독의 방법을 발전시켜온 한국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통서양을 잇는 장금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이입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디스 스튜 박사(미 드류대 석좌교수)를 초청,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21세기 동서동원 미래교회 콘퍼런스’를 여는 것으로 성경 통독 세계화의 첫걸음을 뒀다. 신학장·선도사·강도사·젊은 목사 등 한국 교회의 미래 지도자 1만여명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콘퍼런스의 주제는 ‘21세기는 통(通)이다. Let's Tone!’, 그는 콘퍼런스를 통해 서양 신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뿌리가 사역과 ‘몸주기 사역’ 또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시미션의 주요 활동이다. 매년 여름 교회가 없는 지리산 지락의 마음을 찾아가 봉사활동과 함께 전도활동을 하는 뿌리기 사역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다. 그 마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활동이기도 하다. 들주기 사역은 여름에 농촌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해 3박4일 동안 함께 지내는 일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경남 합천군 평택면 26개 마을에서 200여명의 사역자 뿌리기 사역 활동을 펼쳤으며, 연말에는 광복면 어린이 70여명을 서울로 초청했다. 한시미션의 성경 통독 수련회는 지금까지 20회 넘게 이어지고 있다.

평신도 성경 통독 캠프, 숲과 나무 성경 통독, 지역 성경 통독, 해외 성경 통독, 청소년 성경 통독 운동 등도 계속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성경 통독 캠프와 집회를 인도하러 온 노후우를 모아 ‘성경 통독 이행 계획’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0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만신장부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금도 여러 교회와 소그룹에서 성경 통독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skim@kyunghyang.com

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천자문을 통해로 외우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했듯이 한 글자 한 문장이 열매지 않고 전체를 통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더욱 깊이 깨달아 실천해 살모 옮길 수 있습니다.”

조 박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발원지 1903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고 통독하다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6장을 묶어 보면 노아의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6월2일 신학자 100명, 기독교 겨냥 ‘시국선언’

공동대표에 조병호·박종천

국내 신학자 100명이 모여 6월 2일 ‘시국 선언’을 한다.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닌데 웬 시국 선언?’이란 생각도 들법하다. 전에는 진보적 신학자들이 종종 ‘시국선언’을 했었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신학자 100명의 이번 ‘시국 선언’은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내부를 향한 것이다. 국내 기독교 역사상 100명이나 되는 신학자가 모여 ‘선언문’을 발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이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현주소, 그 ‘시국’은 어떤 걸까.

지난달 25일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 한국 신학자 100인 선언’의 공동대표를 맡은 조병호 박사(한시미선 대표)와 박종천 감리교신학대 교수를 만났다.

조 박사는 개신교 보수진영인 ‘장로교’ 출신이고, 박 교수는 개신교 진보진영인 ‘감리교’ 출신이다. 조 박사는 칼뱅 계열, 박 교수는 웨슬리 계열을 따르는 이들이다. 그런데 둘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 ‘신학자 100인 선언’의 배경이 뭐냐.
“(박) 평소의 고민이었다. ‘신학자의 사명이 뭐냐, 서구 교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문제와 대안을 한발 앞서 제기하는 것이 신학자의 할 일이 아닌가.”

- 그럼 당신이 보는 ‘시국’은 뭐냐.
“(박) 지금은 군사정권 시대가 아니다. 교회가 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교회 내부에 있다. 폐쇄적인 열광주의, 배금주의, 교회의 사유화 등이 문제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선언’을 준비했다.”

-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
“(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오리엔테이션(재정향·Reorientation)’이라고 표현했다. 기독교의 근원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거기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언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적 회복’이라고 부른다. 그래야 ‘성경적 기독교’를 만날 수 있다.”

- ‘성경적 회복’이란 뭐냐.
“(조)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목회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지난달 25일 ‘신학자 100인 선언’의 공동대표를 맡은 조병호 박사(한시미선 대표)와 박종천(감신대) 교수가 만났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100명의 신학자가 모여 교회 내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열광주의·배금주의·사유화가 문제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또 어떤 목회자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가 흘린 땀, 동물들을 돌보던 노아의 마음을 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끌어내는 메시지는 다 다르다. 각각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성경’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성경적 회복’은 그걸 위한 것이다.”
-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읽으면.
“(조) 달리 느껴진다. 서구적인 방식에선 ‘홍수=심판의 도구’ ‘방주=구원’이란 식으로 기계적 도식화가 이뤄진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 또 거기에 대항되는 개념의 구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심정적인 방식으로 ‘노아의 방주’를 읽어

보라. 그럼 달라진다. ‘심판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 그동안 ‘성경적 회복’이 어려웠던 이유는.

“(조) 우리는 지난 120년간 서구 사회의 모범적인 수신자였다. 교회와 신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부분 영역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서구의 방식은 나누고, 쪼개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걸 매뉴얼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서구의 방식은 ‘문자’와 ‘분석’에 얽매인다. 거기선 부분만 보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분과에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 성경적 회복, 그럼 어쩌해야 이뤄지냐.
“(조) 서양은 성경을 지적이고, 인지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동양의 전통적 사고 방식은 다르다. 심정적으로 접근한다. 그건 매우 큰 차이다. 동양적 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왜 중요하냐.

“(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적 회복’을 외쳤던 적이 있냐.

“(박) 루터가 그랬다. 중세 기독교가 현금 강요, 면죄부 판매 등으로 부패했을 때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루터는 ‘나는 여기에 서있다(Here I stand)’고 했다. ‘여기’가 어딘가. 바로 ‘성경’이다. 루터는 성경의 감동과 함께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른다. 결국 루터가 돌아가자고 한 곳은 ‘성경’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 이번 ‘신학자 100인 선언’의 지향점도 그런가.

“(조) 그렇다. 그래서 이번 선언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서양 사회는 계약적·횡적 사회다. 반면 동양 사회는 관계적·종적 사회다. 이젠 둘이 통(通)으로 만날 시점에 왔다. 한국 교회에 그걸 주문하는 것이다.”

“(박)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통하는 곳, 거기서 돌아가야 한다. 그게 ‘성경적 회복’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 주도 조병호 박사 “성경 바탕한 소통의 정신 시급”

지난 2일 한국 교회 신학자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한국 교회 120년 역사 속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시국선언이 쏟아졌지만 이번 선언이 남다른 것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선언이 자신의 신학 성향보다 성경을 더 우위에 두자는 근본적인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시국선언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동안 한국 교회 신학계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산맥을 넘지 못하고 서구 신학의 재생산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재정향(再定向),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선언'을 통해 신학자들은 '진영'을 넘어 성경에 더

개하면서 신학자들을 만났다. 선언 문건 초안을 들고 뛰어다니며 서명을 설득했다. 어떤 학자는 흔쾌히 서명에 응해줬고 어떤 교수는 문건만 읽고 서명하지 않았다. 서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 박사는 충분히 이해했다. 오랫동안 견지해온 자신들의 신학적 경향에 방향을 틀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애초 100인 서명을 준비했으나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늘어 140명까지 많아지게 된 것이다. 1500명 한국 신학자 중 10분의 1이 동조한 셈이었다.

조 박사는 재정향 속에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이 되는 꿈을 꾀다. 그동안 서구 신학을 수신(受信)만 해왔다면 이제는



한시미션 조병호 대표. 그는 지난 2일 열린 '성경을 통한 재정향,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을 주도했다. 그는 신학자들부터 성경에 바탕을 둔 신학을 추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구해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교단·교파 초월 서명위한 물밑작업 혼신 한국교회,연합으로 예언자적 목소리 내야

기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진영을 초월하게 됐다. 한국 교회 위기의 근원지를 신학교와 신학자들로 보고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자는 취지였고 신학자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자기반성이었다.

한시미션 대표 조병호(48) 박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선언에 서명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기울여왔다.

'재정향 선언'의 배경과 의미를 직접 기술했던 그는 성경통독의 전문가로서 일찍부터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교회가 하루속히 연합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국 교회는 과거 보수와 진보로 나뉜 상황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상황논리에 휩쓸려 편향적으로 성경 읽기와 이해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최근 신학자들의 각성은 재정향 선언의 준비에 함께 하는 계기가 됐다. 선언을 위해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김신대 박종현 교수 등과 함

발신(發信)해 보자는 것이다. "서구 신학의 수신에만 익숙한 한국 신학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가진 신학의 바탕 위에 세계 신학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해석학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성경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성경을 조명한다는 것이 문제다. 서구는 서구 입장에서, 아시아는 아시아적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조 박사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되 정교 가족 중심의 관계 등 동양인이 갖는 문화적 경험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경을 경전적으로 볼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 보자는 말이 나왔다. 경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분석적이고 문법적인 성경해석, 즉 성경을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방법을 뜻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조 박사

는 쉬운 예로 노아홍수 사건을 들었다. "서구 시각에서 방주는 구원, 홍수는 심판으로 보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볼 때 하 나님 입장에서 홍수로 하는 심판이 얼 마나 마음 아프셨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물은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 박사는 이러한 심정적 해석을 경전적 해석과 함께 세계 기독교를 향해 내놓 자고 제안했다. 단지 동양적 해석학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지난 100여년 한국 신학이 수신했던 신학의 기반 위에 한국 적 이해와 해석을 첨가하자는 것이다. 그 런 통전적이며 소통 가능한 해석을 하게 될 때 미국이나 중국 교회 등 세계의 교회 가 배울 거라는 소망이다. 19년째 한국 기 독교와 세계 교회의 성경 통독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조 박사는 장신대, 연세대, 영국 에든버러대학에서 공부했고 버밍엄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3. 렉처러 코스 일정표

통통성경 렉처러 코스

TONG BIBLE LECTURER COURSE

Dr. Zoh Byoungho

■ 1주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8:00~9:20		아침식사	
9:20~10:20		강의4 왕정500년 1	강의9 사복음서
10:20~10:40		휴식	
10:40~12:00		강의5 왕정500년 2	강의10 사도행전30년
12:00~1:30	점심식사		
1:30~2:30	강의1 모세오경 1	강의6 왕정500년 3	강의11 공동서신9권
2:30~2:50	휴식		
2:50~4:10	강의2 모세오경 2	강의7 페르시아7권	
4:10~4:30	휴식		
4:30~6:00	강의3 모세오경 3	강의8 중간사400년	
6:00~7:00	저녁식사		

■ 2주차

시간	4일차	5일차	6일차
8:00~9:20		아침식사	
9:20~10:20		강의15 하나님 마음	강의19 성경통독①
10:20~10:40		휴식	
10:40~12:00		강의16 하나님 마음	강의20 성경통독②
12:00~1:30	점심식사		
1:30~2:30	강의12 십자가 원스토리	강의17 성경기도	강의21 통통성경
2:30~2:50	휴식		
2:50~4:10	강의13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①	강의18 성경전도	
4:10~4:30	휴식		
4:30~6:00	강의14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②	통성경학교 교재 학습	
6:00~7:00	저녁식사		

4. 렉처러 코스 수료증

통통성경 렉처러 증서

Certificate Number :



Certificate of
TongBible Lecturer

성 명 : 000
Name :

위 사람은 통통성경 렉처러 코스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1988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TongBible Lecturer Course

0000년 00월 00일

성경통독원
원장 철학박사 조 병 호

BIBLE TONGDOK INSTITUTE
President Rev. Dr. Zoh Byoung-ho (Ph.D.)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Sun O Jeong

Place and Date of Birth: boseong-gun, South Korea, April 25, 1972

Parent's Names: Sengrae Jeong / Gwirye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eonnam Technical High School 26, Wangbeodeulul, 322beon-gil,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90
Collegiate: Sehan University 1113, Green Road, Samho-eup, Yeongam-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B.S	Feb 20, 2003
Graduate: Kwa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6, Yangsantaekjiso-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Div	Feb 24, 1998
Graduate: Kwa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36, Yangsantaekjiso-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A	Feb 25, 200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uno Jeong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